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3 8

VOL. 206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Samsung GALAXY S4

Samsung GALAXY S4 | Life companion

- Android 4.2 Jelly Bean • 1.6GHz Quad Core + 1.2GHz Quad Core Processors
- 13MP (Rear) + 2MP (Front) • 5" Full HD Super AMOLED Display
- 16GB Internal Memory • MicroSD Up to 64GB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 SamsungMobileIndonesia | @Samsung_ID | www.samsung.com/id

www.koreanair.com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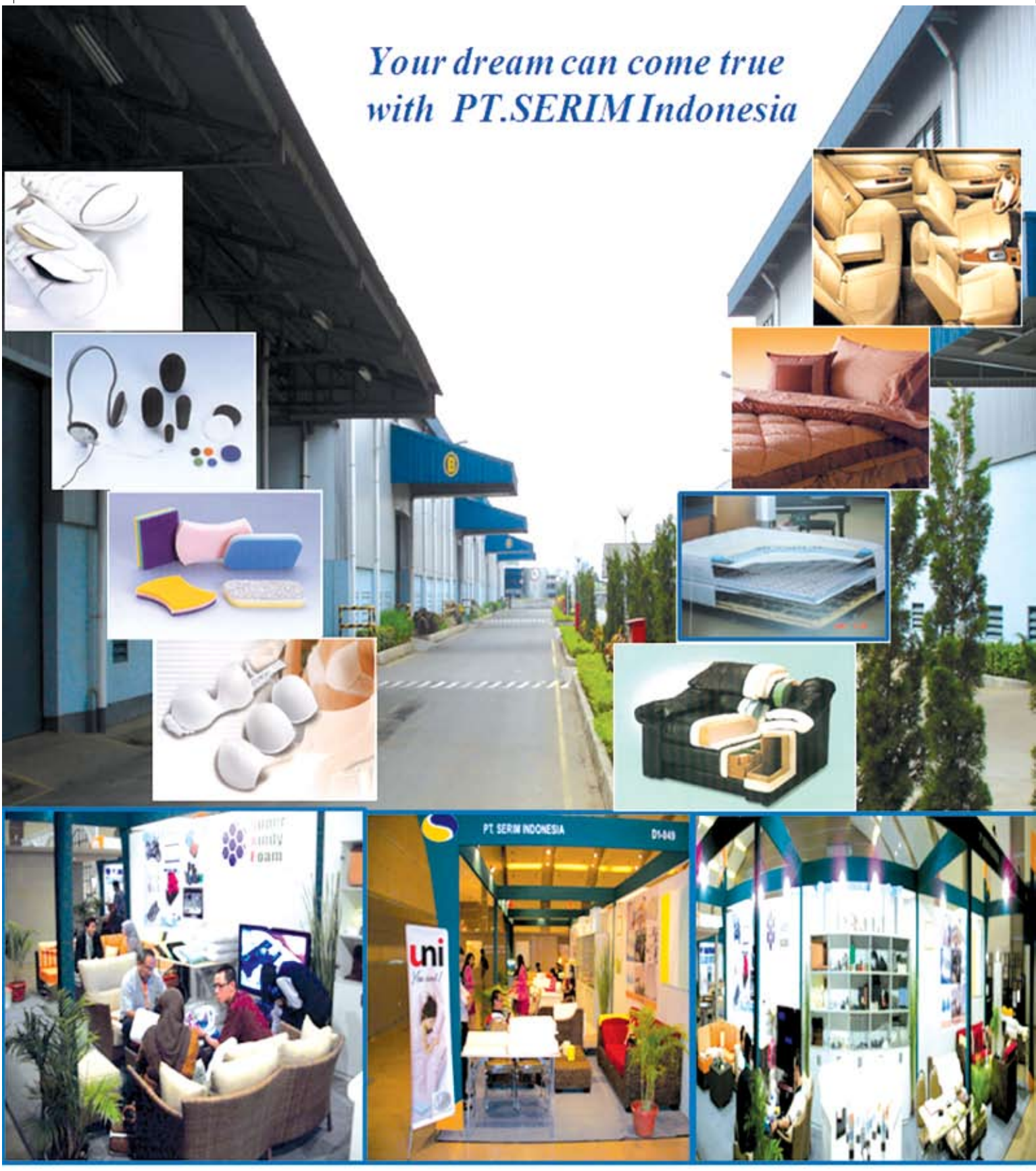
	출발	2205	매일	0705+1	도착
자카르타					서울
	도착	2010	매일	1520	출발

*대한항공은 자카르타에서 서울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예약 및 문의: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Your dream can come true
with PT.SERIM Indonesia

Fill the difference with PT.SERIM'S GREEN FOAM &ECO FOAM

PT. SERIM INDONESIA

Tel. 021) 547-6453~8
Fax. 021) 546-2739/ 546-6601

Medan factory

Tel. 061) 6874-3330~1
Fax. 061) 6874-3332

Cirebon office

Tel. 0811-962-8993

[제68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초청 안내문]

1. 안녕하십니까?
   광복절은 1945년8월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1948년 8월15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것을 공포한 경축일이기도 합니다.

2. 이러한 뜻 깊은 광복 68주년을 맞이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다음과 같이 8.15 광복절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모두 참여하셔서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8월 15일(목), 오전 9시
   장소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Jl. Jend.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특별 공지]
8.15 광복절 기념 골프대회와 체육대회는 저간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금년은 개최되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3년 한인회 법인회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법인명	납입 연도	금 액	
			IDR	USD
1	PT. KOIN SUKSES	2013	5,000,000	
2	PT. DAILY INDONESIA	2013	3,000,000	
3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3,000,000	
4	PT. DONG JUNG INDONESIA	2013	3,000,000	
5	PT. DADA INDONESIA	2013	3,000,000	
6	PT. KCTC SAMUDERA	2013	3,000,000	
7	PT. LEMBU SWANA PERKASA	2013	3,000,000	
8	PT. MERINA	2013		300
9	PT. DOHWA ENGINEER	2013	3,000,000	
10	KOREA AGRO FISIORIS	2013	3,000,000	
11	KORINDO GROUP	2013	15,000,000	
총 금 액			Rp 44,000,000	$300

2013년 한인회 개인회비 납부 명단(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 연도	금액(Rp)
1	김 영 선	2013	300,000
2	승 은 호	2013	300,000
3	신 기 엽	2013	300,000
4	이 인 호	2013	300,000
5	김 영 환	2013 – 2017	1,500,000
6	김 재 민	2013	300,000
7	신 충 일	2013	300,000
8	홍 문 기	2013	300,000
9	홍 석 영	2013	300,000
10	조 규 철	2013	300,000
11	정 무 웅	2013	300,000
12	전 영 돈	2013	300,000
13	김 문 호	2013	300,000
14	김 일 영	2013	300,000
15	강 덕 재	2013	300,000
16	최 양 기	2013	300,000
17	황 윤 홍	2013	300,000
18	김 문 환	2013	300,000
19	황 의 상	2013	300,000
20	이 완 식	2013	300,000
21	임 성 용	2013	300,000
22	강 희 중	2013	300,000
23	장 천 수	2013	300,000
24	승 범 수	2013	300,000
총 금 액			Rp 8,400,000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
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한인회사무국 한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명예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3	20,000	
2	한인회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3	20,000	
3	한인회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3	10,000	
4	한인회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3	5,000	
5	한인회부회장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3	5,000	
6	한인회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3	5,000	
7	한인회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SECURITIES	2013	5,000	
8	한인회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3	5,000	
9	한인회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3	5,000	
10	한인회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TRANS	2013	5,000	
11	한인회부회장	이 진 수	PT. SUNG BO JAYA	2013	5,000	
12	한인회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3	5,000	
13	한인회부회장	조 용 우	외한은행	2013	5,000	
14	한인회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3	5,000	
15	한인회부회장	최 상 학	우리은행	2013	5,000	
16	한인회부회장	황 의 상	PT. INWHA INDONESIA	2013	5,000	
17	한인회자문위원	강 덕 재	PT.LEMBUSWANA PERKASA	2013	1,000	
18	한인회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3	1,000	
19	한인회자문위원	김 영 만	PT.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2013	1,000	
20	한인회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3	1,000	
21	한인회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3	1,000	
22	한인회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3	1,000	
23	한인회자문위원	양 영 연	PT. TAEWON INDONESIA	2013	1,000	
24	한인회자문위원	오 세 윤		2013	995	
25	한인회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3	1,000	
26	한인회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3	1,000	
27	한인회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3		10,000,000
28	한인회자문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3	1,000	
29	한인회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 INDO	2013	1,000	
30	한인회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3	1,000	
31	한인회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3	1,000	
32	한인회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3	1,000	
33	한인회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3	1,000	
34	한인회이사	김 경 국	PT. N E S	2013	1,000	
35	한인회이사	김 달 수	PT. KIDECO JAYA AGUNG	2013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36	한인회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3	1,000	
37	한인회이사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3	1,000	
38	한인회이사	김 상 태	SMS GROUP	2013	1,000	
39	한인회이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3	1,000	
40	한인회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3	1,000	
41	한인회이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3	1,000	
42	한인회이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3	1,000	
43	한인회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3	1,000	
44	한인회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3	1,000	
45	한인회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3	1,000	
46	한인회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3	1,000	
47	한인회이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INDUSTRI	2013	1,000	
48	한인회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3	1,000	
49	한인회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3	1,000	
50	한인회이사	안 홍 제	PT. KOLON INA	2013	1,000	
51	한인회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3	1,000	
52	한인회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3	1,000	
53	한인회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3	1,000	
54	한인회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3	1,000	
55	한인회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3	1,000	
56	한인회이사	이 석 태	PT. U F U	2013	1,000	
57	한인회이사	이 종 억	KOREAN AIR LINE	2013	1,000	
58	한인회이사	이 종 현	PT. LEO KORINSIA	2013		10,000,000
59	한인회이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3	1,000	
60	한인회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3	1,000	
61	한인회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3	1,000	
62	한인회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3	1,000	
63	한인회이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3	1,000	
64	한인회이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3	1,000	
65	한인회이사	정 철 주	PT. DONG-IL INDONESIA	2013	1,000	
66	한인회이사	조 호 신	PT. SONERGY	2013	1,000	
67	한인회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2013	1,000	
68	한인회이사	현 정 규	PT. MEKAR SAMMI JAYA	2013	1,000	
69	한인회이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3	1,000	
70	한인회이사	황 윤 홍	자카르타경제일보	2013	1,000	
총 금 액					$166,995	Rp20,000,000

차 례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엽 배상

차례.....10

이모저모한인사회.....12

대사관 신청사 태극기 게양식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한인회, 인니 어린이 후원금전달
코리안데이
자카르타 aT센터개소
코린도 우드칩 생산공장 준공
코린도vs현대차 법적공방
사진전 감상문 시상식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출간
2013동남아한상대회

표지설명

Pantai Selong Belanak
Lombok Tengah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원푸드 다이어트, 1일식에 이어
일주일에 이틀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간헐적 다이어트가
한국에서 붐을 일으킬 모양입니다.
다이어트를 덜 고통스럽게,
융통성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단식과 금식의 차이란....
육체의 훈련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알라의 죄사함과 자비를 구하는
라마단 금식을 하는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1246
편집장 홍석영

이 달의 읽을거리

2013세계한인회장대회
한국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제2기 출범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취항
산림바이오매스
제2회 한인테니스 대회
JIKS소식

풍경과 사람 <엄종한>.....35
라마단.....36
인도네시아 약용식물(망기스)<백진협>.....38
헤리티지탐방기<여수정,이수진>.....40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허영순>.....42
좌충우돌 인도네시아 표류기(7)<이준규>.....44
소외질병치료제개발.....46
질밥 그리고...<신성철>.....47
CNN선정 한국의 명소.....50
행복에세이<서미숙>.....54
Jalan-Jalan Jakarta/국립박물관<사공경>...56
신 사회 단체법<이승민>.....62
데사드림한담<손인식>.....66
화도소.....68
8월의 영화추천작.....70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있습니다***

DYNAMIC KOREA

제 목 : 교도소 재소자 탈주 등 치안불안 상황관련 유의사항

지난 7. 11 북부수마트라 메단지역 소재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백명의 재소자 집단탈출에 이어 7. 17에도 바땀지역 교도소에서 12명의 재소자가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미검 재소자 검거를 위해 비상경계근무에 돌입하는 한편, 경찰대테러부대를 메단 지역에 긴급 투입하여 탈주 미검 재소자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테러리스트 검거를 위해 강력한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7.16 메단 거주 아국인이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수명으로 구성된 소매치기단에게 현금, 신분증 및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하는가 하면, 2011. 10. 20에도 메단공항으로 입국한 한국계 미국시민권자가 오젝을 이용, 숙소로 이동하던 중 휴대가방을 탈취하려는 오토바이 날치기 2명과 격투를 벌이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특히 현금을 소지한 외국인을 노린 범죄 조직의 활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포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일부지역 치안불안 상황을 참고, 미검 탈주 재소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불시 작전가능성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메단지역에서와 같은 외국인 상대 유사 범죄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주 및 여행 시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국외도피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우리경찰청에서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국에서 범죄 후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을 우리대사관 관계관 등에게 신고하여 소재추적, 검거 및 송환에 기여한 동포들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150여명으로 이중 상당수는 평온하고 공정한 동포사회를 위해 신고해준 분들의 수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며 동 기간에 지급된 신고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사건 경중 및 신고에 의한 송환 기여도 등을 고려,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동포사회를 위해 국외도피사범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분은 아래 경찰주재관 전화번호 또는 사이버경찰청 웹메일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경찰주재관: 0811-1683-730
사이버경찰청(fugitivereport@police.go.kr)

대사관 신청사 태극기게양식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신청사공관 영사관에 재건축 기공식이후 25개월 만에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이날 김영선대사를 비롯하여 대사관 임직원, 한인회 임직원과 건설사임직원이 참여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대사관은 지난3년간 더 플라자 오피스타워를 임대해 업무를 보다가 이전작업을 마치고 11일 오전9시부터 신청사에서 영사업무를 재개했다.
오는 8월 중순경에 종합 준공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사관 신청사는 예전 대사관 자리에 재건축되었으며 주소는 Jl. Jend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이다.

김영선대사, 승은호명예회장, 신기엽한인회장은 한국대사관 영사동 정문에 있는 국기게양대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대사관 이전 안내〉

신청사 주소 및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주소 :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 연락처
  – 대사관 대표전화 : (62-21)2967-2555
  – 대사관 대표팩스 : (62-21)2967-2556,2557
  – 영사과 대표전화 : (62-21)2967-2580
  – 영사과 대표팩스 : (62-21)2967-2581
  – 당직전화 연락처 : (62)811852446
  (16:30 이후부터)
  – 대표이메일 : koremb_in@mofa.go.kr

7월 11일(목) 09:00 부터 상기 신청사에서 영사업무가 재개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OCHAM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rea Center, 5th Floor, Jalan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Tel (62-21) 527-7539
*Fax (62-21) 5296-0586 *E-Mail kocham0909@gmail.com *Website www.innekorean.or.id
*송금처 HANA BANK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CQ KOCHAM *계좌번호(USD) 001 0071 001512

Kocham 소개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인 상공인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 1991년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 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999년 확대 발족회의를 통해 회칙을 재정하고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CHAM)로 공식 발족하였으며,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제2차 회칙개정회의를 거쳐 조직을 재개편하여, 회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역할을 통해 한인기업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한인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입니다.

주재국 대사관, 업종별 협의회 및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업계의 단합된 힘과 결집력을 배가시키는 구심점으로써 대변인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심에 섭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 단체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있는 최고의 해외 경제 단체를 지향하는 한인상공회의소는 KADIN, APINDO 등 인도네시아의 제 경제 단체,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비롯한 한국의 제 단체 뿐 아니라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의 주요 멤버로서 국제적인 다양한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투자분야 뿐 아니라 노사, 통상, 경제, 기업 등 주요정책 논의에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ocham 회원이 되시면

- 매주 최신 업데이트된 주요 동향이 포함된 정기 레터를 받습니다.
- 매주 토요 주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원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미팅에 우선적으로 초대됩니다.
- 직속 노동자문관 및 세무관세자문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회원분류	가입비	연회비	비고
이사회원	USD 100	USD 1,000	장관급이상 회의 우선 초대
일반회원	USD 100	USD 300	재인니한국기업
준회원	USD 100	USD 300	재한한국기업 및 재인니외국기업
특별회원	USD 100	–	정부출연단체

*회원가입문의는 남지화 사무국장(0812-8266-485) 또는
김혜아 간사(0813-1064-9663)로 연락 바랍니다.

제3대 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및 확대발족식

송창근수석부회장이 상공회의소(KOCHAM)의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KOCHAM은 지난 6월 13일 인도네시아한인회 총회에서 추대된 송창근 수석부회장을 제3대 상공회의소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를 7월 1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송창근 회장을 비롯해 김영선 대사, 승은호 초대회장, 신기엽 한인회장, 코참 회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가졌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상공인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 1991년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 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시작되었다.

1999년 확대 발족회의를 통해 회칙을 재정하고 재 인니 한인상공회의소(KOCHAM)로 공식 발족하였으며,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제2차 회칙개정회의를 거쳐 조직을 확대, 재개편하였다.
송창근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하여 "투자 확대와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우리 기업인들이 단결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라며 "한인 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김영선 대사는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한인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며 "대사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격려사를 통하여 밝혔다.

코참 관계자는 "회원가입을 통하여 회원사에게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자문역할을 통하여 한인기업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신기엽 한인회장은 '2013년 베스트 공관장 상'을 수상한 김영선 대사에게 상패 전달식을 하였다.

■이모저모, 한인사회

Donation for Children Day
of Indonesia
Rp. 100.000.000,-
Korean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한인회,인도네시아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전달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Children's voice = World's future'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명 Gugah Nurani Indonesia, 지부장 박동철)는 한인회와 함께 23일(화) 우스마르 이스마일홀(꾸닝안)에서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날을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 어린이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통한 캠페인과 대정부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동철 지부장은 "1954년 유엔 총회의 어린이날 기념 제정 이후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984년부터 7월 23일을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어린이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 이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홍보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엽 회장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어린이날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하며 1억 루피아를 후원하였다. 또한 P.T 빅스타 (대표 최광수)는 신발 천 켤레 증정하였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설립 이래, 현재 전세계 33개국에서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협의지위를 획득했다.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는 2004년 12월 수마트라 섬 쓰나미 긴급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부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여 현재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라와바닥, 멘뗑, 짜꿍을 비롯, 메단 블라완, 델리 서르당, 아체 물라보, 빠당, 수까부미, 보고르, 롬복,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버카시, 슬라웨시 엔레깡의 총 14개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제2회 코리안데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선종복)는 JIKS 나래홀에서 11일 '제2회 코리안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고 조화와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같은 날 개최되는 창의력 페스티벌을 마치고 학부모회 주최 먹거리 마당을 시작으로 즐거운 점심식사 후 한바퍼의 길놀이로 시작됐다.

선종복 교장의 개회사와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영상, 버나공연, 부채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학부모 합창단의 마징가 Z, 인도네시아 전통 샤먼 댄스, 록밴드, 댄스 등 평소에 갈고 닦은 JIKS 학생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졌다.

선종복 교장은 "JIKS 코리안데이 행사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문화적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때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코린도 우드칩생산공장준공

▲ 왼쪽 첫번째부터 기오타카 신도 오지그룹 사장,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요시노리 카토니 일본대사, 아흐맛 디란 중부 칼라만탄주 부지사.

펄프용 우드칩 연간 100만t 생산, 전량 일본 수출인도네시아 한상기업 코린도그룹(회장 승은호)이 7월25일 중부깔리만딴주(州)에 조림목을 펄프용 원자재인 우드칩(Wood Chip)으로 가공하는 공장을 준공했다. 코린도그룹의 자회사인 PT 코린띠가 후따니(PT. KORINTIGA HUTANI, 이하 KTH)가 세운 새 공장은 연간 100만 톤의 우드칩을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을 할 예정이다. 코린도 측은 빵깔란분 지역에 조성한 조림지에서 키운 나무를 펄프용 원목을 판매해왔으나, 우드칩으로 가공해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드칩 생산공장은 화석 연료가 아닌 바이오 매스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발전 설비(7.3 MW 급)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했다.

승은호 회장은 이날 준공식 기념사에서 "지금까지 조림과 원목 생산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생산 잉여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즉, 신 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눈을 돌려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KTH는 빵깔란분 인근 나따이 뻐라무안 지역에 302헥타르 규모의 종합목재가공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우드칩 공장은 목재가공단지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목재가공 단지에는 우드칩 생산 공장 외에도 이미 연산 36,000㎥ 규모의 합판 생산공장이 가동 중이고, 오는 10월에는 연산 12,000㎥ 규모의 제재목 생산공장 그리고 내년 중반에는 연산 10만톤 규모의 우드펠릿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코린도그룹은 종합 목재가공단지 1차 건설이 2014년에 완

▲ 코린도그룹이 깔리만딴섬 나따이 뻐라무안 지역에 조림목을 가공하는 우드칩(Wood Chip) 공장을 준공했다. 우드칩을 컨베이어벨트로 강변에 있는 선적장으로 옮기고 있다.

료되면 연간 총 1억5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조림지에서 자란 용재용 조림목을 가공하는 종합 자동화 합판공장이 건설되면 매출이 5억 달러로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최대 조림회사 중의 하나인 KTH는 1998년부터 중부 칼리만탄 주 빵깔란분 인근에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0년 3월에 일본 최대 펄프, 종이 회사인 오지 홀딩스가 자본참여를 했다.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는 "나따이 목재가공단지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3개국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3개국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윈-윈 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영선 한국대사는 이날 준공식 기념사에서 "저는 지난해 9월 이 곳 빵갈란분 조림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8만ha에 이르는 '나무 바다' 를 보고 저는 그만 할 말을 잊었습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인이 꿈꾸던 바로 그 광경이었습니다" 고 말했다. KTH의 임지는 총 허가면적이 94,384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임지가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에 강우량이 풍부해 나무가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한 빵깔란분 조림지의 주요 수종은 주로 펄프 원료로 사용이 되는 아카시아(Acacia Mangium)와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이용되는 유칼립투스(Eucalyptus Pellita) 등이다. KTH는 클론 임업이라는 기술을 도입해 대규모 면적에 매년 890만 그루 이상을 성공적으로 조림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클론 임업이란 많은 나무들 중에서 조림지에서 잘 자라는 개체를 선발해 개량 · 육종하고 여기서 클론을 채취하여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하는 기술을 말한다.KTH는 지난 15년간 클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수한 묘목을 자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무분별한 천연림 개발로 황폐화된 인도네시아 산림을 복구하고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조림지를 조성했다.또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체 허가면적의 약 10%인 10,320헥타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인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KTH 임지 내 보호구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로를 개설하고 오랑우탄 보호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오타카 신도 사장은 "코린도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선견지명에 대해 경의를 표시합니다." 라고 말했다. . KTH는 조림지에 인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림 조성사업을 추진해 현재 아카시아 망이움 조림지 약 2,100헥타르가 만들어졌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교

육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술학교를 설립해 최신의 조림, 과일재배, 양어, 축산 기술을 지역주민에게 전수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은 1969년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이후 조림과 오일팜, 석탄 등의 자원사업을 기반으로 제지, 화학,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견실히 확장하며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코린도 그룹은 당장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온 KTH의 조림지와 목가공 단지가 자사의 미래를 밝히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dailyindo@gmail.com]

코린도 vs 현대차 법적공방 제2라운드 개막

현대차와 코린도간 법적 공방이 제2라운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부지방법원은 2013. 7. 11.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 판결에서 "본 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Tidak Bisa Diterima)"는 내용의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각하 판결이란 원고 청구취지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단순히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판결의 하나로, 본 사안에서 담당 재판부는 "계약상 분쟁해결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다"라는 이유로 코린도에 대하여 소각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러나 코린도는 이에 대하여 "계약상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함이 맞지만,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에서 제기한 소송은 계약과는 관계없이 현대차의 명백한 인도네시아공법(公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Tort) 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네시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실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인도네시아 제1심에서 소각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코린도 청구가 정당한지,현대차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따져보지도 못한 채 실질적으로 양사간 법적 공방 제1라운드는 무승부로 끝나고 만 것이다.

현재 코린도는 제1심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다시 제1심을 제기할 것인지 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어디에서 법적 공방이 펼쳐지던지 간에 이 사건을 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와 현대차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불공정/불법 행태에 대하여 더욱 깊이있는 법률적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와 코린도간 분쟁은 대한민국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코린도는 "계약상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한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의 불법행위 소송과는 별개로 현대차의 순수한 "계약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2013년 8월 중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현대차의계약위반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산정중에 있다.

결국 현대차와 코린도간 공방은 코린도가 인도네시아 제1심 소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바야흐로 법적공방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현대차와 코린도는 2006. 6. 16. 현대차가 부품을 공급하고 코린도가 이를 인니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5년여간 계약을 지속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현대차가 공급한 중국산 저급 변속기, 리어액슬 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결국 코린도, 현대차 딜러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이에코린도는 회사의 손해회복과 더불어 다시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에 피해를입혀서는 안된다며 2013. 3.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6.25 및 북한인권 실상 사진전 감상문 시상식

7월 12일 한국 국제 학교에서 6.25및 북한인권 실상 사진전 감상문 시상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지난 6월20일 부터22일까지 열렸던 같은 학교 나래홀에서 인도네시아 전 교민들과 학생들로 열렸던 사진전에대한 감상문을 재인도네시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감상문에 대한 시상이다.

한국 자유 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와(이하 자총) 민주평통 동남아시아 남부협의회(이하 민주 평통)에서 주최한 이 행사의 시상식에서 총6편을 선정하여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 3편을 시상하였다.

최우수상인 대사상에서는 한국국제학교 6학년 임민혁 학생이,우수상인 한국 자유총 연맹 총재상은 한국국제학교 11학년 이재영 학생, 한국국제학교 교장장에는 한국국제학교 11학년 김민석 학생,장려상3명으로 재인니 한인회상에는 한국국제학교 7학년 손지원 학생, 한국 자유 총연맹 회장상에는 한국국제학교 조민석 학생이 민주평통 동남아시아 남부협의회 회장상에는 한국국제학교 신정수 학생이 수상 하였다.

이번 시상식이 끝나고 박동희 회장과 한국자유 총연맹인니지부 수석부회장. 우용택 사무 처장 민주평통 박현순 자문위원 한국국제학교학교 선종복 교장및 초중 교감이 같이 한 자리에서는 해외에 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갖도록 내년 부터는 자총, 민주평통 한국학교가 연중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행사를 갖고 앞으로는 감성 세대 정서에 걸맞는 영상물과 토론회등을 통해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지속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감상문 공모전에는 6.25및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같은 동족 북한에 대한 동정심과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읽을수 있었다.

이번 사진전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 전시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이날 박 동희 회장은 자총과 민주평통이 연합하여 자주 이런 행사를 가지므로 자라나는 2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있도록 돕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동남아 농식품 수출확대 거점" 자카르타 aT센터 개소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거대 할랄 식품 시장개척 첨병역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최근 떠오르는 신흥 성장 국가인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지원을 위하여 aT 자카르타 지사를 설치하고 7월 18일 aT 자카르타 지사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 신기엽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한국 식품을 전문으로 수입하는 바이어,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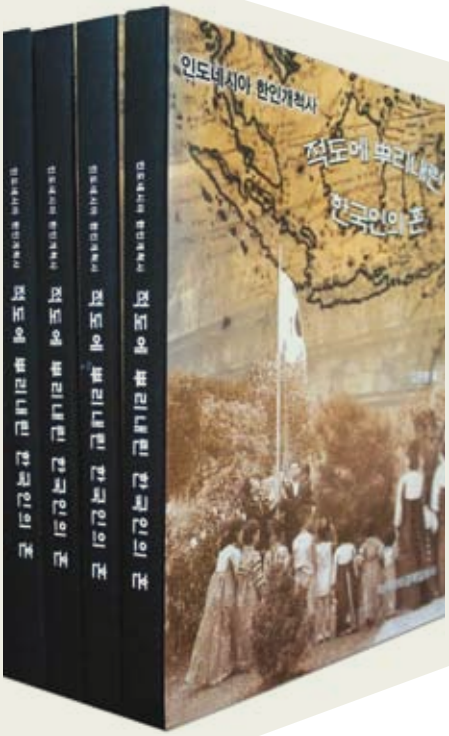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4천만 명의 동남아 최대 시장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도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8%가 이슬람교을 믿고 있는 세계 최대의 국가이며, 할랄 식품 시장의 규모 또한 700억불 규모로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할랄 식품 시장 성장 잠재성이 가장 큰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aT는 경쟁력 있는 우리 농식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해외 시장개척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할랄 식품 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전 세계 이슬람 할랄 식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의 규모는 6,6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거대 할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교두보로 평가되어지며, 우리 농식품의 이슬람 할랄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aT 자카르타 지사가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드디어 출간

"한-인니 수교40주년 맞아 기념비적인 사업 완수" 전달식 가져



김문환(64) 인도네시아문화예술총연합 회장이 저술한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사진)' 이 드디어 출간됐다.

김 회장과 본사 황윤홍 발행인은 15일 한인회 문화회관 2층 도서관에서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에게 책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김 회장은 전달식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 준비된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된 데 대해 깊은 의의를 두고 있다" 며 "이것을 초석으로 삼아 앞으로 계속해서 한인개척사를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선 대사는 "한-인니 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를 하나의 책으로 발간한 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사업이다. 자카르타경제일보가 많은 노력을 했다" 며 본지를 격려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직접 친필 사인한 책을 김 대사에게 전달하는 한편 백성택 아세안대표부주재 한국대사, 신기엽 한인회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신임회장, 김희년 본지 명예발행인 등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자카르타경제일보사(대표 황윤홍)가 출판한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 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본지에 28회에 걸쳐 인기리에 연재됐던 김 회장의 한인개척사를 총정리하여 한 권의 책자로 엮어낸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인 김 회장이 지난 4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며 정치권의 유력 인사와 많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회장은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인터뷰를 가지는 동시에 현장을 발로 뛰며 흩어져 있던 각종 한인관련 자료들을 대거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한국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혼신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한 · 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을 맞아 대사관과 한인회의 주도로 잊혀지기 쉬운 우리 한인 선조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의 흔적을 찾아 보존하자는 움직임에 때맞춰 자카르타경제일보사의 첫 출판간행물로 발간됐다는 데 더욱 의미가 새롭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중요 보존 사료로 활용될 이 책자는 금번 한정판으로 발간됐으며, 인도네시아의 전국지방한인회, 한국문화원, 한국국제학교(JIKS)등 주요기관에 배포, 비치돼 방문자들에게 자유로이 열람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중앙도서관, 재외동포재단을 비롯한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에도 배포돼 인도네시아에 기록된 한인 사회의 정신을 영구히 전할 예정이다. 책자 배포에 관한 문의는 자카르타경제일보사(021-5290-0118)로 연락 가능하다.

해방전후~1980년대 한인 개척자들의 땀의 기록들

■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주요 내용

Pasang miring
깔리만딴에 기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는 영광' 을, '양국에는 우호.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꼭 마두라에도 같은 기적을 이루시어 자원개발 선구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봉서 동력자원부 장관이 1989년 8월 31일 남부 깔리만딴 주 바뚜리찐 목재현장에서 불철주야 땀흘려 일하는, 현지인보다 더 새까맣게 탄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경외감과 존경심을 표시한 글이다.
김문환 저자의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이 15일 출간됐다.
책 내용은 자카르타경제일보의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문환 문예총 회장이 그간 본지에 기고한 한인 및 한인기업의 초창기(해방전후~1980년대) 인도네시아 진출과 개척 활동이 다이나믹하게 그려져 있다.
특히 일제강점 초기 1920년대부터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른채 무작정 남양선을 타고 인생의 드림을 꿈꾸고 진출한 우리 개척자들이 불모지에서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며 일궈낸 인간승리의 기록들이 감동적으로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선배들이 보여준 감투정신과 투쟁정신은 후배들이 영원히 귀감으로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 책으로 인해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5만여명의 동포사회를 이룬 한인들의 뿌리를 더듬어 내고 개척자들의 애국정신과 동시에 기업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는 평생을 조국광복에 헌신한 선각자이자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부터 인도네시아 영화의 초석을 놓은 연극영화인 허 영, 인도네시아 최초의 메리야스 공장을 세운 사업가 유홍배, 한인사회의 대부이자 네덜란드의 은인 김만수, 열대농업 전문가 신교환 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 수카르노와 특별한 인연을 쌓은 풍운아 최계월까지 인도네시아에 먼저 진출하여 길을 닦아놓은 선인(先人)들의 발자취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남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 이라는 말처럼 앞서 살다간 이들의 피와 땀의 응결이 오늘의 인도네시아 동포사회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선인들의 면모를 타산지석 삼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동포 및 기업에게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가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한인개척사는 우리 한국인 모두의 역사교훈

■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축사

반갑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매주 금요일 자카르타경제일보 7면에 인기리에 연재 되어 온 한인개척사가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출간 된다는 소식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가장 반갑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김문환씨의 한인개척사를 접하여 대강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선보인 자카르타경제일보에 그간의 내용들을 새로 다듬고 보완하여 주간 정기 기획물로 연재되어 우리 모두가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2대 한인회장을 역임하신 부친 신교환 회장의 이야기는 부친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함께 산 40여 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한 편의 드리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정착 초기 한인동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

■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축사

한-인도네시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에 우리 한인들의 인니 개척의 발자취를 광범위하게 담은 최초의 한인개척사가 발간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적도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혼 – 인도네시아 한인개척사>는 1920년부터 시작된 한인들의 인니 정착의 역사를 세밀한 조사와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기념적 산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인니 정착초기 선구자들의 개척정신과 진취적 혼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인니 정착을 시작한 이래 우리 한인사회는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인니내 가장 큰 외국인 동포사회를 형성하는 한편 1,800 여개의 우리 업체가 각 분야에 진출하여 인니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양국 관계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인니 우호관계는 1973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 국방협력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착실하게 발전해 왔으며 최근 양국 관계는 황금기에 접어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 관계발전의 바탕에는 물론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인니 정착초기부터 지속되어온 우리 한인동포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땀과 노력이 탄탄한 토대가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한 역사가 E.H.Carr 의 언급처럼, <한인개척사>는 후손들로 하여금 초기 인니 개척역사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발견하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인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인 동포사회와 우리 기업들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인니 정착초기 고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한-인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계실 한인동포사회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김영선

금번 간행되는 한인개척사는 우리 한국인 모두의 역사 교훈입니다. 지난 역사 없이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 질 수 없듯이 우리의 부끄러웠던 지난 과거가 오늘의 우리 한인 사회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의 현재가 모여 당당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김문환씨의 한인개척사는 아주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에 이 책이 우리 선배들의 잊혀진 숨은 노력들을 후손들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이러한 작업을 지난 수십년간 사비를 들여가며 헌신적으로 준비하신 저자 김문환씨의 눈물 나는 노력에 감사 드리며 특히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보존판 책자로 발간하는데 앞장 선 자카르타경제일보사의 지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저자와 자카르타경제일보사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

2013년 7월 15일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2013 동남아한상대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7월4일 태국 임페리얼 퀸즈파크 호텔에서 열린 2013 아시아 한인회총연합회(회장 승은호) 총회에서는 한인회 수익을 위한 인터넷사이트 운영 방안와 동포재단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총회는 승은호 회장의 개회사와 채언기 태국한인회장의 환영사,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의 축사와 함께 막이 올랐다.

승은호 회장은 "모기도 많이 모이면 천둥소리를 낸다. 거창한 목표보다 자주 모이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이번 총회도 아시아총연이 세계한인사회에 존재감을 알리고, 또 아시아 한인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는 행사" 라고 소개했다.

김종완 재단 사업이사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발상전환과 발칙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다면서 아시아총연이 충실한 네트워크로 이같은 정책실현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승은호 회장이 주재한 안건토의에서는 한인회 수익을 위한 사이트 운영이 먼저 안건으로 떠올랐다. 재외동포재단 김종완 이사는 재단이 지난 3년간 130억원을 투자해 코리안넷을 구축했다면서 교민사회의 적극 활용을 호소했다. 20만명의 인물과 4만개의 단체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고 말했다.

태국의 김장열 전 한인회장은 재외동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 스스로 운영하는 케이블 TV를 만들자면서 "승은호 회장께서 투자하라" 고 즉석 제안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에서 온 최석 동남아한상연합 수석부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동포뉴스 보도를 위해 특정 TV에 주는 20억원의 3분의 1만이라도 할애해서 동포케이블TV를 만들자" 고 제안했다.

이연상 몽골한인회장은 서울-울란바타르 노선이 너무 비싸다면서 한인회 연합회 차원에서 가격 인하 등 압력을 가하자고 제안했다.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동포재단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면서 강력한 재외동포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임시총회를 갖는 한편, 내년 3-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기총회와 동남아한상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총회 참석한 각 지역한인회장들은 이날 개최된 태국한국문화원 개관행사에도 참여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8차 동남아한상대회가 같은 호텔에서 승은호 회장의 주재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각국 한인회장들과 한상대표, 태국 한인사회 리더들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월드 코리안)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2013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는 전 세계 73개국 380명의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논의하고 모국의 경제 부흥을 위한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동참하고 국내외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외에도 한인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과 법률을 정비하고, 재외동포들의 구심점이 될 '재외동포 교류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였다.

아시아한인회장간의 지역별 현안 토론에서는 차세대들의 한글교육 및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방안등이 논의되고 7월3일부터 6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및 동남아한상대회"에 많이 참석하여 아시아국가들간에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정부 건의문도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였다.

금번 대회 기간에 특기할 점은 민주당 김성곤의원의 발제로 매년 10월3일(개천절)부터 10월9일(한글날)까지 1주일간을 "세계 한문화주간(The Korean Week)"으로 제정을 하여 730만의 재외동포가 한민족 문화를 널리 알릴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금번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이무찬 찌까랑한인회장, 장병록 발리한인회장이 참석하였다.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취항

아시아나 항공이 7월19일 밤(금) 자카르타에 입항하여 취항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기엽한인회장은 "이제 독과점시대가 가고 서비스경쟁시대가 열렸고, 항공운임도 적정선으로 책정되어 한인동포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며 "우리모두가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고 덧붙였다.

25일 아시아나항공은 자카르타에 이어 발리노선에도 취항하게 된다.

인천-자카르타노선은 주7회, 매일 운항하며, 인천-발리노선은 매주 목,일요일 주2회 운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 자카르타 지점은 이번 취항을 기념해 특가 항공권을 제공하고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며, 9월30일까지 인천-자카르타노선에 탑승한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에게 기존에 비해 2배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줄 것을 밝혔다.

<<<왼쪽부터 박철우지점장, Praminto Hadi공항장, 코린도 승은호회장, 류광희 여객본부장, 신기엽 한인회장, 정용석 국토해양부건교관

(한인신문제공)

제2회 한인테니스대회 겸 제94회 전국체전 대표선발전

2013년 7월 6일에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KSAI)가 주관한 제2회 한인테니스대회 겸 제94회 전국체전 대표선발전 남자부 복식 경기가 스나얀 운동장 내에있는 테니스코트(글로라붕까르노)에서 열렸다.

이대회는 자카르타의 한인 테니스 클럽 소속 선수(아라테 테니스 클럽 7팀, 아마르따뿌라 테니스클럽 2팀, 찌까랑 테니스 클럽4팀)들과 개인자격 참가 선수들로 촘16개팀 32명이 참가하여 성원을 이루었다. 4개조로 나뉘어 예선 경기를 조별 풀리그로 치루었고 본선부터는 토너멘트로 진행되었고 첫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4팀이 추첨을 통하여 준결승과 결승을 치른 결과 금메달 안혜종 이해왕 선수(아라테 테니스 클럽) 은메달 민혁기 김시현 선수(아라테 테니스 클럽) 동메달 조연섭 박종철 선수(아라테 테니스 클럽) 현상범 마승욱 선수(아라테 테니스 클럽)가 각각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성부터 경기 내내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참관한 교민들의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였다. 작년 제1회 한인테니스대회 겸 제93회 전국체전 대표선발전과 비교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몰라보게 향상되어 그간 열심리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메달을 받은 안혜종 이해왕 선수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함으로서 인도네시아 한인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에 앞서 6월13일에는 여성부 경기가 리뽀찌까랑에 위치한 앨리시움 스포츠빌리지 테니스 코트에서 있었다. 참가자가 많지 않고 지정된 복식 파트너가 없어 순환식으로 파트너를 교체하여 성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개인별 복식 경기를 치룬 결과 금메달은 작년에 이어 김현숙 선수(수카부미)에게 은메달은 장점순 선수(아마르따뿌라 테니스클럽)와 문혜란 선수(아마르따뿌라 테니스클럽)에게 동메달은 이혜영(아마르따뿌라 테니스클럽)선수와 손순덕 선수(아라테 테니스클럽)에게 돌아갔다.

제1회 한인테니스대회에 비하여 선수들의 기량도 좋아졌지만, 대회를 주관한 재인도네시아 체육회 테니스 분과에서는 오랜 준비와 면밀한 계획을 착오 없이 진행하여 참가 선수와 참관한 한인 여러분의 칭송을 들을 수 있음으로서 체육행사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한국자유총연맹인니지부 제2기출범

한국 자유 총 연맹 인니 지부가 9월 6일 찰립 3주년을 맞으며 제2기 출범을 맞는다. 한국 자유 총연맹 인니 지부는 지난 7월 26일 마포 식당에서 임원 정기 총회에서 현 상범 현 한국 자유 총 연맹 인니 지부 자문 위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제2기를 맞는다. 현 상범 당선자는 ROTC 출신으로 1977년 15기 임관 1979년 예편 후 인도네시아에 와서 2011년 인도네시아 ROTC 제14대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 자유 총 연맹 인니 지부 자문위원을 거쳐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 되었다.

한국 자유 총연맹은 1954년 조직되어 국내 16개 해외 26개 지부를 가졌고 국 내외 회원 150만명을 거느린 호국 단체로서 NGO UN상임이사에 가입하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을 일깨워 주기 위해 활발히 활동 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국 자유 총연맹 인니 지부는 2010년 9월 6일 인도네시아에 지부를 개설하고 박 동희 초대회장이 이제까지 이끌어 오면서 6.25 독도 사진전 북핵 실험 반대규탄대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인니 환경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해오면서 제2기 현 상범 당선자 체재의 출범을 맞게 되었다.

이 날 현상범 당선자는 수락인사에서 차기 인니 지부 운영 계획을 밝혔다.

3년 임기중 1년차는 무엇보다 과도기에 내부 조직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 2-3년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한국 자유 총맹 인니지부의 제2기 출범을 맞이 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한 민국 국민들이 특히 해외 동포들이 정체성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단체가 한발 앞선 마인드의 활동으로 리더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KOICA, 산림 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 착공식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7월 8일, 인도네시아 남부 깔리만탄 반자르 군 마따라만(Mataraman)에서 "산림 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인니 측 Mr. Bambang Hendroyono 산림개발청장과 Mr. H. Pangeran Khairul Saleh 반자르 군수, 우리 측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등 양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 기후변화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총 400만 달러 규모의 본 사업은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가공시설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개발 협력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KOICA는 반자르 군내에 펠릿 공장(연 5천톤 규모)을 건축하고 시범 조림지(200 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원자재 공급 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센터와 녹색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 산림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반자르 군 지역의 경제적, 친환경적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JIKS

미스코리아 유예빈양 '자랑스러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인상' 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장 선종복은 2013.7.8일 나래홀에서 2013년 미스코리아 眞에 선발된 유예빈양(2010년 졸업)에게 '자랑스러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인' 상을 수여하였다.

학교장 선종복은 이 상을 수여하면서 외모보다 지성이 넘치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 대한민국과 모교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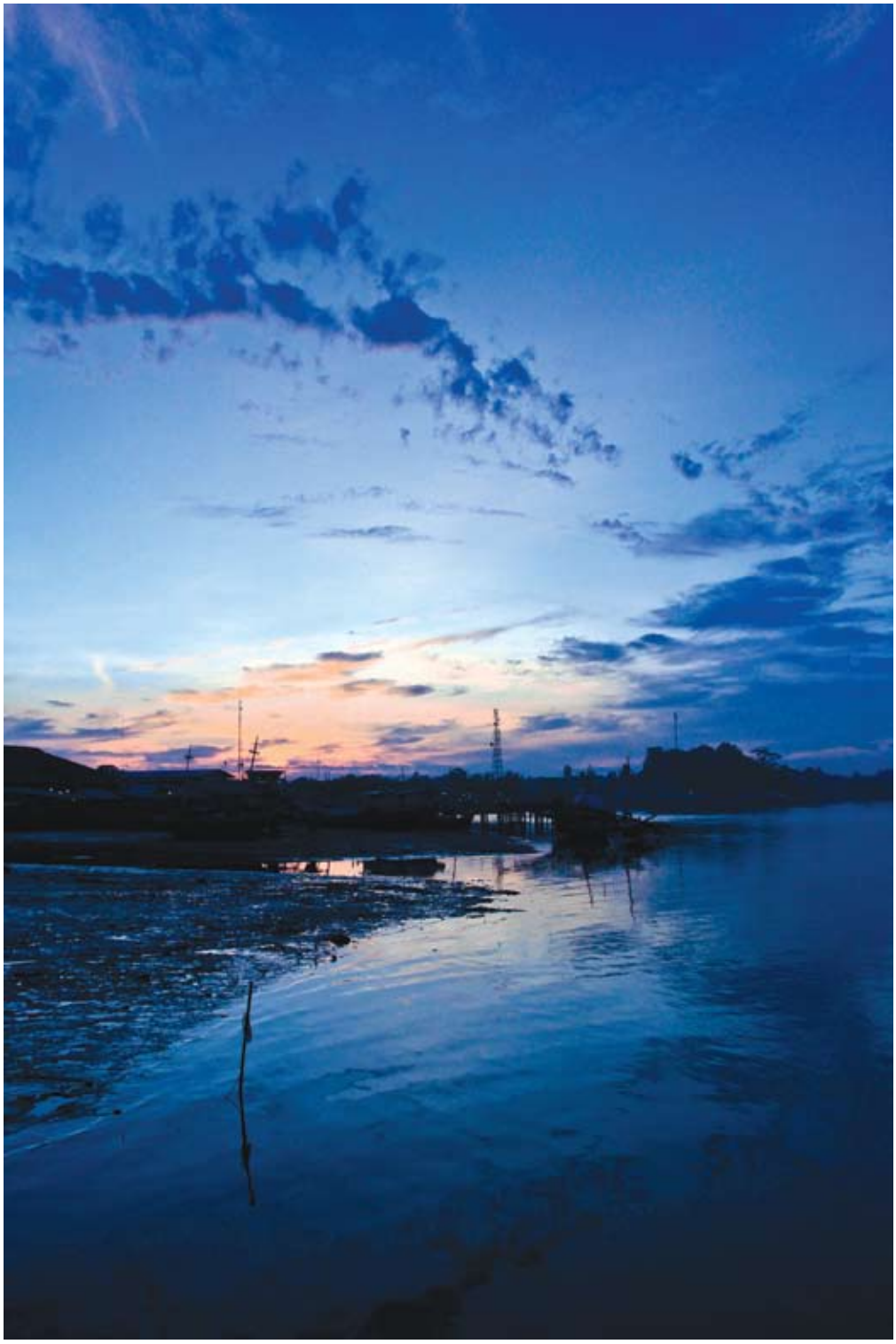
유예빈양은 후배들의 질의문답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그 계기를 말하였다. 또한 후배들을 향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교육목표와 같이 글로벌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 세계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학술교류 협정식

2013년 7월 15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선종복)와 대구교육대학교(이하 대구교대, 총장 남승인)는 JIKS 교장실에서 학술교류협정식을 맺었다.

이번 협정으로 JIKS는 대구교대 예비교사인 교육실습생을 받아 교육철학 및 교수방법을 가르치고 전수하게 될 것이며, JIKS 초등학생들은 대구교대 실습생으로부터 다양한 특별활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대구교대생들은 글로벌시대에 맞는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글로벌 교사로 자라날 것이다.

이밖에도 학술자료 및 교수학습 자료 등을 교환하게 되며, 교원연수프로그램 등도 지원받게 되어, 양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elitung

언제이든 무엇이든 시작을 할때는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푸른 여명속에 기다리고 있을 찬란한 태양을 생각 한다면
우리의 시작은 결코 힘들고 외롭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사진과 글 **엄 종 한** 한인뉴스편집위원

라마단, 무슬림의 가장 성스러운 달

면죄와 용서, 형제애와 동정심 강화하는 단식

20억 무슬림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달인 라마단 달의 단식이 터키에서는 지난 9일(현지 시간) 시작되었다. 라마단 달은 이슬람력으로 9월이며,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단식을 통해 알라에 대한 공경과 복종(무슬림이란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을 실천을 통해 증명한다.

▲ 라마단 단식월 중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성원을 찾아가 예배에 참여한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11 개월의 황제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라마단 단식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기정화의 수단이며, 의식적인 육체적 욕구 억제를 통해 신앙심을 강화하고, 절제와 인내를 통해 면죄와 용서, 형제애와 동정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의 라마단 준비와 라마단 기간의 하루 일과

라마단 기간 중 가장 바쁜 사람은 가정주부와 여성이다. '청결'이 중요한 무슬림에게 라마단 시작 전 집안 청소는 중요하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친척과 이웃들이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단식을 깨는 저녁식사'를 위해 많은 손님이 방문하기 때문이다. 집안 청소를 마친 가정주부들은 한 달 동안의 풍성한 '단식을 깨는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시장보기와 음식준비에 바쁘다. 라마단이 시작되면 단식 중인 낮 동안에 시장보기와 음식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린다. 이슬람교 예배시간은 이슬람력에 따라 예배시간이 결정된다. 하루 다섯 번의 예배시간은 지역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 이슬람교에서 사용하는 태음력은 1년이 355일이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볼때 라마단은 해 마다 10일씩 앞당겨 진다.

라마단 기간의 하루 일과는 새벽예배 이전부터 시작된다. 라마단의 첫날인 지난 9일 이스탄불 첫 예배시간은 새벽 3시 35분이었다. 라마단 기간에는 잠을 깨우는 '북치는 사람'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새벽 예배 30~40분 전에 기상 시간을 알린다. 가정주부와 여성들은 먼저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라마단 기간은 첫 새벽예배 이전과 저녁예배 이후에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예배 이전 아침식사는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마친 이후 새벽예배를 위해 이슬람성원에 가기고 하고 집에서 새벽예배 알림 방송을 기다린 후에 새벽예배를 하기도 한다. 새벽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벽 4시쯤 된다. 새벽예배 후 대부분 다시 취침한다.

'단식을 깨는 저녁식사' 이전까지 대부분의 경건한 무슬림들은 이슬람성원이나 집에서 쿠란을 읽거나 쿠란과 관련된 행사들에 참여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슬람성원과 재단에서 열리는 '여름쿠란학교'에 참석한다.

라마단은 단식뿐 아니라 쿠란과도 깊은 관련이 있

다. 라마단 달에 꾸란을 많이 읽거나 꾸란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 이유는,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라마단 달에 알라의 첫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라마단 달에 단식하라고 꾸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라마단 달에 단식한다. 전국의 이슬람 지역교구장들은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 라마단 기간 동안 꾸란과 관련된 행사와 장소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 라마단 기간 중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성원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꾸란을 읽으면서 단식하기도 한다.

'단식을 깨는 저녁식사' 시간도 각 지역마다 다르다. 언론매체들은 라마단 기간의 예배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 라마단 첫날의 저녁식사 시간은 저녁 8시 47분. 저녁식사 시간 전에 밥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시간 알림 방송을 기다린다. 이슬람 성원이나 방송국에서 저녁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나오면 하루 단식을 깨는 즐거운 만찬이 시작된다. 저녁식사는 관공서, 이슬람성원, 재단과 개인이 준비한다.

무슬림들은 단식한 사람에게 '단식을 깨는 저녁식사' 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으로부터 보호되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무슬림들에게 희사는 의무중의 하나다.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희사를 한다. 단식 중인 낮 동안 이슬람성원 안에는 사탕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단식 중이라 사탕을 먹을 수 없지만, 희사하는 사람의 물품을 받지 않는 것은 죄라며 사람들은 사탕을 받는다. 저녁까지 먹을 수 없는 사탕이다. 어떤 사람은 휴지를 나누어주며 사탕을 보관하게 한다. 크고 작은 희사를 통해 알라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은총을 받기 위함이다. 희사를 받는 사람은 "당신의 희사가 알라께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단식을 깨는 저녁식사' 는 무슬림들에게 면죄와 용서, 형제애와 이슬람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기회이다. 가정주부들은 단식 중에도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과 이웃을 초청해서 만찬을 즐긴다. 이 만찬은 라마단 기간에만 있는 심야예배 때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슬람포풀레이션닷컴>은 2013년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20 억이라고 발표한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한국내 무슬림은 약 13만 5천 명이며, 이 중 한국인 무슬림은 3만 5천 명이라고 말한다. 라마단 단식은 무슬림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이슬람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중요한 절기이다.

(오마이뉴스)

망기스 (Manggis)
열대과일의 여왕

일반명: Mangosteen (영어), Manggis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Mangkut (태국)
과　명: 물레나물과(Family: Gutiferae)
학　명: *Garcinia mangostana* L.
기원지: 인도네시아(말루쿠 제도), 말레이시아(캐마만 지역)
분　포: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 등 열대 아시아 저지대
이　용: 생과일, 가공식품, 염색제, 지사제, 피부 로션
모양새: 열매는 자줏빛의 두꺼운 껍질을 가진다. 4장의 초록색 꽃받침이 남아있으며, 과육은 우윳빛의 흰색이며 마늘처럼 쪽이 있다.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자줏빛 갑옷을 입은 열대 과일의 여왕

과일의 황제 '두리안'과 더불어 맛이 뛰어나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얼마나 맛이 좋길래 과일의 여왕이라 별명 붙었을까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이며 흔히 '망기스'라고 불리는 과일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여왕이 애용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맛은 향긋하고 달콤하며 약간 새콤한 맛이 납니다. 과육은 귤 혹은 마늘처럼 여러 쪽이 들어있는데 새하얀 흰색입니다. 과육은 물기가 많고 보드라우며 은은한 아로마 향과 더불어 매우 달고 새콤한 맛이 납니다. 단맛 때문에 새콤한 맛은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열을 내려주는 특성이 있어 두리안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 과일로 알려졌습니다.

망기스 과일은 멀리서 보기에 흑적색 혹은 흑자색의 둥근 공 모양입니다. 크기는 탁구공이나 테니스공과 비슷합니다. 윗부분에는 초록색의 둥글고 두툼한 꽃받침이 남아있습니다. 열매 아랫부분에 6~8개의 납작한 돌기가 있는데 이것은 암술머리가 남은 것으로 돌기의 수가 안쪽의 과육 쪽수와 일치합니다. 시장에선 흔히 거꾸로 과일을 배치하여 녹색 꽃받침 부분을 위로 진열합니다. 껍질을 벗길 때 나오는 보라색 색소는 타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한번 물들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용

망기스는 대부분 생과일로 소비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망기스 나무는 재배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열매를 수확한 뒤에도 쉽게 멍이 들어 운송 및 보관이 어려워 널리 유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혹 냉동 보관된 망기스가 동남

아시아 밖의 시장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과육을 통조림, 시럽, 잼 등으로 가공하거나 냉동 건조하여 과자류로 제조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용 목적 외에도 전통적으로 보랏빛 과일 껍질에 다량 함유된 '타닌'을 이용해 가죽처리 및 섬유 염색에 널리 이용해 왔습니다. 민간에선 망기스의 껍질을 화상, 습진, 구내염, 치주염, 장염, 설사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망기스나무 껍질이나 잎을 피부 로션이나 상처 치료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고 뿌린 달인 물을 불규칙한 월경 조절을 위해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잠재 가치 연구

과육의 달고 새콤한 맛과 열을 내리는 특성을 활용해 갈증 해소 음료나 다이어트 음료 개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망기스 열매껍질에 들어있는 크산톤이라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유명합니다. 20여 종이 넘는 크산톤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알파 크산톤과 감마 크산톤이 가장 폭넓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테킨과 폴리페놀, 폴리사카라이드가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염, 항발암, 항균,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항산화에 대한 실험실 수준의 효능 연구가 많이 밝혀져 있으나 아직 임상시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편입니다. 꾸준한 임상시험을 통해 항염증과 항암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을 시도해볼 만합니다.

고르는 법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신선하고 맛있는 망기스를 잘 골라서 마음껏 즐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고르기가 웬만해선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껍질에 윤기가 나고 밝은 흑자(적)색을 띠며. 너무 무르거나 딱딱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로 눌러보아 약간 탄력 있게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덜 익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크기는 품질과 무관하며 오히려 작은 것이 먹기에 좋은 과육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extile Museum / Kembang Goela

5차 헤리티지 탐방 후기

일시: 2012년 12월 22일

탐방 참가자 여수정
헤리티지 코리안 섹션 공동회장 이수진

이제 막 인도네시아 생활 한달 차를 채우고 근무시간 외 흥미거리를 찾던 찰나, 인도웹을 통해 헤리티지 탐방에 관한 공고를 보게 되었다. 좋은 탐방이 될 것 같아 박물관 투어에 지원을 하였다. Textile Museum 입구에서 함께 박물관을 탐방할 분들을 만나 뵈었다. 유남실 공동회장님이 전체 투어를 진행하였는데, 너무나 능숙한 솜씨였다. 우선 바틱 박물관을 방문하였는데 인도네시아의 각 지방의 바틱의 특징을 설명해주셨다.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바틱들이 있었다. 세계 각 문화(중국, 인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많았고, 네덜란드의 통치를 350년간 받은 여파로 서양적인 네덜란드 화폐와 건물이 그려져 있는 바틱은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바틱을 만드는 데에 쓰인 여러 가지 기법도 설명해주셨는데 평소 옷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나에게 많은 상식을 주었다. 각 지방에서, 다른 문화와 조화되어 서로 다른 기법으로 만들어진 바틱의 문양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해 주었다.

베니라는 영어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에 지어져서 개장했다는 바띡 갤러리에는 너무나 산뜻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만들어진 바띡 천이 아주 많았다.

갤러리 입구에 오픈 된 공간의 첫 번째 방에서 본 바띡은 마두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첫 눈에 보기에도 예사 바띡 판매점이나 주위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바띡이 아니었다. 일반인들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공들여 만든 것으로 보였다. 짙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대조적으로 눈에 띄고 바띡이 훨씬 정교해 보였는데 특히 바띡 제작 과정 중 염색하는 과정이 아주 놀라웠다. 마두라에서는 테라코타 항아리에 뿌리와 껍질에서 나온 빨간 염색물을 넣고 그 속에 바띡 천을 담구어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염색을 한다고 한다. 이어서 또 3개월 동안 천연 염색약인 인디고에 담궈 바띡 천에 짙은 청색을 낸다고 한다. 염색 기간이 길어서 신기하게 느껴졌다. 인디고로 나온 짙은 청색도 예쁘지만 빨간색이 여간 세련된 것이 아니었다. 마두라의 빨간색은 색상이 아주 차분하면서 짙어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다웠다. 이러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빨간색은 다른 지방의 빨간색과는 많이 달라 보였다. 특히 빈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깨끗해 보였다.

바띡은 그림의 문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의 전체적인 바탕이 하얀 배경인지 아니면 그물 문양인지 비늘 문양인지 등에 따라서 다양하고 가치에도 차이가 난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바띡 천의 바탕까지 눈 여겨 자세히 보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빈 배경이 없고 이런 저런 자

잘한 무늬를 넣은 다양한 문양이 다 다르게 보이면서 차이점이 구별되기까지 해 보는 재미가 쏠쏠나기 시작했다.
그링싱은 바띡 천에 바탕이 비늘문양인 것을 말하는데, 무병을 의미한다고 한다. 동부 자바 마두라에서온 바띡 뿐만 아니라 서부 자바 찌르본, 가룻이나 중부 자바에서 만들어진 바띡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해안 지방의 바띡과 내륙지방 바띡이 색상과 디자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바띡 전시관에 오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지역별 바띡의 구별법까지 나름대로 익히게 되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설명을 듣게 되었다.

내륙지방이면서 바띡의 최초 산지인 솔로나 족자에서 나온 바띡은 짙은 노란색, 고동색, 청색, 흰색 등의 색채를 띠는데, 해안지방인 찌르본 인드라마유와 뻐깔롱안의 바띡은 특히 나비, 꽃 등 동식물이 주로 나오면서 빨강, 분홍, 노랑 등 색상이 아주 다채롭다.
바띡의 다이아몬드 문양은 전통 예식 때 사용하는 떡 모양에서 본을 딴 것이라 한다.메가 먼둥이라는 구름 모양의 아주 유명한 찌르본 바띡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용이 인사하는 문양은 왕궁에서 사용한 것이라 하는데 아주 돋보이는 바띡이었다. 구름 사이로 나와있는 용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다.
어떤 것은 문양보다도 색상이 아주 맘에 쏙 들었었는데, 두가지 색상으로 되어, 연하고 차분한 보라색과 흐린 회색이 아주 조화롭고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는 깔끔한 맛까지 있어서 보기에 아주 예뻤다. 잠비, 벙꿀루에서 이슬람 영향으로 아랍 글자 문양을 한 바띡도 색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중부 자바의 족자 솔로는 바띡의 원산지로 유명한데, 그 중 솔로의 바띡은 짙은 노란색을 기본 색으로 한다. 족자 귀족과 궁중에서만 입었던 금지된 문양 8개 중에 하나인 Parang은 다이아몬드 연결 부분이 없고 Parang rusak은 다이아몬드형 연결부가 있다고 하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유심히 바띡을 보니 그 다이아몬드가 다시 눈에 확 띄었다. Parang rusak의 길이에 따라 궁궐에서도 입는 사람의 신분이 달랐다고 한다. 15센티의 경우 왕만 입고 10센티는 왕비만 입고 5센티 정도되면 공주와 왕자가 착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왕은 권력은 끝이 없으므로 가장자리 장식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

동부자바 마두라 말라카 해협 남편이 선원인 아내가 파도치는 바다와 말라카 해협를 묘사한 바띡은 짙은 초록색을 기본으로 하여 한층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누가 바띡을 촌스럽다고 했는가? 여기 있는 바띡들은 귀품이 넘치고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지닌 고급 품위까지 갖추었다.

각양각색의 바틱 뿐 아니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바틱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베, 재료들을 직접 보았다. 베로 실을 짜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진 실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정원으로 나가 옷감 염색에 쓰이는 재료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상식을 쌓아가는 시간이었다. 탐방이 끝나고 분위기 좋은 식당(Kembang Goela)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 인도네시아 전통 식을 주문하였다. 함께 탐방하였던 분들과 통성명도하고 명함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이 외지에서 한국 분들과 함께 탐방하는 묘미가 아닌가 생각했다.
헤리티지 탐방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박물관이라 할지라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1월 일정은 모두 마감되었지만, 오는 2월부터 기회가 되는대로 다양한 헤리티지의 문화탐방에 참여하고 싶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일일 드라마 지성이면 감천
Tulus Hati

노총각 이성수 감독과 노처녀 최일영 작가
우여곡절 끝에 백년해로 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어른께 인사 드립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들 하죠. 무뚝뚝하고 철없던 이성수 감독이 결혼 승락을 받고 기뻐하자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올케 맞을 준비에 심난한 누나가 " 참 좋기도 하겠다. " 라며 너무 기뻐하는 동생을 나무랍니다.

Kenapa dia harus begitu riang?

참 좋기도 하겠다. (심난해 하며(약간 비아냥 거리며 "좋겠다 좋겠어" 라는 표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흥겹고, 신나고 등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 입니다.
때에 따라 오늘 참 행복하다. 즐거운 저녁식사였다. 그 노래 참 흥겹다. 방학은 참 신나는 일이다. 와 같이 문장에 따라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르게 사용됩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도 기쁨을 표현하지만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ang : 즐거운, 유쾌한 (Suka hati)
* Anak yang biasanya riang itu sekarang terlihat murung sejak ayahnya meninggal.
항상 유쾌하던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울해 보인다.
* Orang yang selalu berpembawaan riang sangat sulit ditebak suasana hatinya.
항상 밝은(유쾌한) 사람의 의중은 알 수가 없다 (짐작하기 어렵다)

Riang Gembira : 즐겁고 신나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Suka hati dengan gembira)
* Dengan hati yang riang gembira kami menyambut kedatangan nenek
즐거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맞이했다(기꺼이)
* Dengan hati yang riang gembira saya akan membantu acaranya.
기꺼이 그 행사를 돕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Bahagia: 운이 좋은, 행복한: ,어려움이 없는
(Tentera, aman, lepas dari segala yang menyusahkan)
* Aku rela melepaskanmu asal kau bahagia hidup bersamanya.

8월엔 인도네시아와 이슬람의 최대 명절인 이둘피트리가 있습니다.
적게는 8일간에서 길게는 10일 이상 긴 휴가를 떠나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가족과의 만남을 고민들은 가족과 여행이나 모국 방문을 합니다. 여행은 그야말로 일상생활에서 찌들었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털어 버릴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국내 여행도 쉽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엔 가사도우미도 유모도 기사들도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장기 휴가를 요청합니다. 매번 휴가 때 마다 우리는 아버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 외부 활동으로 바빴으니 이제 집안일에 신경 써 달라는 것이지요. 가급적 가족과 식사한다. TV 보는 시간을 줄인다. 등등 이번 이둘 피트리는 임금인상 및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상반기를 이끌어온 아버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접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와 행복하다면 기꺼이 당신을 놓아 주겠어요. (행복한, 어려움이 없는)
* Mensyukuri apa yang kita miliki adalah salah satu kunci hidup bahagia.
행복한 삶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Gembira: 좋은, 반가운, 뿌듯한(Bangga) 즐거운(Suka, bahagia, senang)
* Gadis cilik itu terlihat gembira saat dia bermain dengan anjingnya.
강아지와 놀 때 소녀는 즐거워 보인다. (행복)
* Anak-anak di pengungsian itu merasa gembira setelah dihibur oleh sejumlah badut dan pesulap.
피난 온 아이들이 마술사와 광대의 (탈 인형)위로를 받고 행복해 한다.

Senang: 즐거운, 만족스러운, 행복한 (Berasa puas dan lega, berbahagia, suka, gembira)
* Ayah senang melihat anaknya sudah bisa berjalan kaki tanpa bantuannya oleh siappun.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걷게된 아이를 보고 아버지는 행복했다 (만족스러운 뿌듯함)
* Murid itu selalu tampak senang setiap kali gurunya memintanya maju ke depan untuk menjawab soal Matematika.
그 학생은 선생님이 수학문제풀이를 위해 앞으로 부를 때마다 즐거워 보인다. (뿌듯함, 자랑스러움의 행복)

Suka cita: 즐거운, 기쁜, 한 없이 기쁜 (Suka, Gembira)
* Umat muslim di seluruh dunia menyambut bulan Ramadan dengan penuh suka cita.
전세계 이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라마단을 맞이한다.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 Suka cita terasa sampai ke pelosok negeri ginseng ini saat ia berhasil masuk ke babak semifinal Piala Dunia 2002.
2002년 월드컵 결선 진출에 한국 국민들이 한 없이 기뻐했다.

ceria: 환한: 밝고 기쁘게보이는 (Cerah, Selalu terlihat bersenang- senang)
* Anak yang sehat akan selalu tampak ceria.
그 아이는 항상 밝다.(기뻐 보인다)
* Gadis yang dulu selalu ceria itu kini menjadi sosok pemurung setelah ibunya menikah lagi.
항상 밝던 (행복한, 만족스러운) 소녀는 엄마가 재혼한 후 우울한 아이로 변했다.

이 준 규 (외환은행)

"아줌마, 소주있어요?" 얼마 전부터 저녁때 식당에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말이 아니고, 어설픈 인도네시아말이긴 하지만요… 자카르타에서 소주가 귀하게 된 사연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진실을 알 수 없으니 술꾼들 사이에 여러가지 '썰'들이 난무합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소주를 수입할 때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부터도 여기에서 소주가 서민주가 아니었지만, 요즘 소주값은 '이걸 꼭 먹어야하나'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참 적응이 안됩니다. 소주는 고등학교 교복을 벗고 나서부터 지금껏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안주값이 아까워 '짬봉국물' 만 시켜놓던가 아니면 김치찌개에 계속 물을 부어가면서 먹었어도 소주값이 아까워서 못먹는 일은 여지껏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에서는 '오늘저녁 '술' 값은 내가 낸다, 안주값은 너희가 내라' 뭐 이런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복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아내를 처음 만났던 시절에 어떻게든 자연스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주한잔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탄생시킨 것이 '오이소주', '레몬소주' 같은 칵테일 소주였습니다. 평소에는 소주 한두병은 그냥 마시던 당시 '그녀'들은 남자친구와는 술을 못한다는 내숭(?)을 떨다가 마지못해 한두잔 받아주던 것이 '오이소주'였습니다. 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감안한 '사과탕수육' 같은 저렴한 안주에 순하게 넘어가는 '오이소주'를 아내와 처음 마신 곳은 학교앞 '천하일품' 이라는 퓨전음식점이었습니다.

요즘 술과 관련된 흉흉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대다수는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가장 핫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는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풍속도를 다룬 '두근두근' 이라는 제목의 코너가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20년지기 친구사이인 남녀는 같이 콘서트를 다녀올 정도로 친하지만 아직 속마음은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선배의 소개로 하게된 소개팅을 가지고 티격태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쿨하게 그냥 친구라고 하지요… 그러다 남자가 기침을 하자 여자는 걱정하며 내일 꼭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집 앞에서 남자를 보내고 여자가 돌아서면서 혼자말을 합니다. '아유, 저 화상, 혼자 병원가라면, 또 안갈거야' 그리고는 선배에게 전화하면서 코너가 마무리됩니다. "선배, 저 내일 소개팅 못갈거 같아요, 갑자기 병원갈일 생겨서요…" 이 코너를 보면서 저는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이럴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전 주로 마셨던 술은 '처음처럼'이라는 소주였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이브랜드의 비결은 교훈적인 제목때문이 아니고, '신윤복'씨가 멋있게 쓴 소주병의 붓글씨때문도 아니라, 흔들어 마시라는 컨셉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잘 흔드는 '국민애인' 이효리가 등장한 광고는 술꾼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꽉 잡았습니다. 술자리마다 술병을 흔드는 진풍경이 연출되었구요, 급기야 술병의 이효리씨 사진을 손으로 잘 찢어서 술잔 바닥에 붙이는 일명 '효리주'가 탄생했습니다. 술잔에 술을 따르고 빨리 마실수록 이효리씨와 빨리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덕분에 정말 원없이 소주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주가 귀하게 되면서부터, 나름대로 이를 대신할 다른 술을 여러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일부러 중국집에 가서 고량주를 마시던지, 주류전문점에서 다른 종류의 술을 사와서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우리의 그냥 '소주'맛은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한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사실 술을 시원하게 잘 마시지 못해서 한두잔 홀짝거리거리는 편이고, 술에 취하면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낭만가객도 아니면서 왜 이리 술을 좋아할까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술자리의 자유로움과 마주앉은 사람들과의 살가운 소통의 느낌때문일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생을 닮은 소주의 쓴 맛에 첫눈에 반하였고,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삶의 힘든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맥주처럼 가볍지 않은 소주 맛은 노래로 치면 이문세류 보다는 김현식이나 김광석의 노래와 닮아 있습니다.

물론, 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달을 벗삼아 술을 마셨다는 시인 이백은 강물을 칼로 베어도 강물은 또 다시 흐르는 것처럼, 술로 시름을 달래도 시름은 또 시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달을 잡으러 떠나간 그의 인생처럼 이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단, 너무 과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정도만 즐긴다는 전제에서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의 한국사람들은 소주한잔을 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안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놓고 소주를 마시는 그날은 과연 언제쯤 오는 걸까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정부 ODA사업 연계 필요

"1960년대 해외에서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뎅기열, 결핵 등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은 아프리카의 질병 문제 해소뿐 아니라 스스로 소외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산 · 학 · 연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적 한계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의약화학연구센터 정영식 센터장(사진)은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소외질병(Neglected Disease)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메리카 등 주요 열대지역 개도국 저소득층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뎅기열,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질병 등이 대표적인 소외질병이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말라리아(연간 2500만명), 뎅기열(연간 5000만명)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은 전체 신약개발 건수의 1%에 불과할 정도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서 발병되는 질환이기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다. 정 센터장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면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글로벌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주도로 산 · 학 · 연 네트워크가 구성돼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주춤한 상태다. 이에 한국화학연구원과 STEPI는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을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화학연구원, STEPI가 주도하고 신풍제약, 바이오니아 등 기업, 열대성 의학연구소 20여곳,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이 현재 '소외질병 ODA 사업 네트워크' 를 구성해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면서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태" 라고 설명했다.

그는 "빌 게이츠 재단 등에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면서 "정부 ODA 사업으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이 이상적 모델로 꼽은 것은 노바티스와 싱가포르 정부가 2003년 설립한 노바티스 열대병 연구소(NITD:Novartis Institute for Tropical Diseases)이다.

NTID는 열대병의 획기적인 치료제 및 예방요법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로, 현재 말라리아, 뎅기열, 결핵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되는 치료제는 열대병이 만연해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이윤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그는 "싱가포르 정부와 노바티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NITD 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ODA 사업으로 연계해 진행한다면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화학연구원은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제약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지난 6월 나이지리아에서 소외질병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워크숍에서 화학연구원 등은 나이지리아 제약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외질병 ODA 네트워크는, 화학연구원은 소외질병 치료제를 개발해 보급하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아프리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하는 모델이 될 것" 이라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능력을 키워 보건 의료수준이 향상하는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뮤직뱅크 인 자카르타 k-pop에 열광하는 질밥을 쓴 소녀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dailyindonesia.co.kr)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질밥(Jilbab 또는 히잡)' 을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와 정치 변화를 짚어보았다. 이 글은 '나의 이슬람' (원제 줄리아의 지하드, 저자 줄리아 수르야꾸스마, 옮긴이 구정은/푸른숲)' 과 '이슬람 문화' (최영길/알림)를 참고했다.

80년대 말 질밥 쓴 여성은 드물었다

지난 3월 9일, 자카르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K-pop 공연장을 찾은 2만여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 사이에 질밥을 쓴 소녀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있는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가리는 질밥을 쓴 것을 보며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필자가 80년 말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해도 질밥을 쓴 여성은 흔하지 않았다. 한국계 제조공장에서는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질밥을 쓰는 직원의 채용을 꺼렸으며, 드물게 질밥을 쓰고 온 여직원에게 질밥 착용을 통제하면, 이 여직원과 관계된 이슬람 지도자가 회사를 방문해 항의하는 정도였다. 당시에는 질밥 문화가 없었거나 유행이 아니었다.

이슬람 계율에 따르면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은 여성의 가슴을 비롯하여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돌출시켜 유혹의 원인이 됨으로 외출할 때 두루마기와 비슷한 의상인 차도르(Chador)를 입는 것이 꾸란의 계율이다. 차도르는 주로 이란 등 중동지방에서 여성 무슬림들이 입는다. 머릿수건과 달리 온몸을 다 가리는 망토 형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꽃무늬 등 화려한 천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검은색이 일반적이다.

무함마드가 성숙한 여성은 그녀의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전통을 남겼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노출시킬 수 있는 남성은 아버지, 남편, 시아버지, 자식, 남자형제, 조카, 성욕을 소멸한 하인이나 내시,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남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미를 자랑하는 미인선발대회가 이슬람사회에서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노출된 부분이 없어서 남성의 눈을 유혹하거나 코를 자극하지는 않지만 차도르 속에 화려한 의상과 아랍의 진한 향수는 아랍 남성의 마음을 매혹시킨다. 차도르 생활에 익숙한 여성은 치근대는 남자가 없어서 편하고 외출시 치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낡은 옷이라 할지라도 차도르가 가려주기 때문에 편리함을 느낀다.

Chador

수하르토 시대의 이슬람

신질서 시대인 1989년 어느날 필자의 부하직원이 며칠 동안 결근한 후 질밥을 쓰고 출근해, 이유를 물으니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다른 동료들을 통해, 그 여직원이 실연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질밥을 씀으로써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아 보였다.

개방적인 이슬람국가에서 많이 쓰는 질밥은 수하르토 시대인 신질서 시기에는 드물게 볼 수 있었다. 신질서 시대에는 중앙집권 강화와 종교집단이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슬람을 의도적으로 억눌렀다.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은 이슬람 세력의 지원을 얻고자 1990년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인 하비비를 총재로 인도네시아지식인무슬림연합(ICMI)을 결성한다. 이 조직은 1991년 말 인도네시아 27개 주에 지방조직을 갖춘 대조직으로 확장했는데 정부고관, 퇴역군인, 학자 등을 영입하고 정부의 이슬람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원로 이슬람 지도자들을 끌어들여 이슬람 세력을 통제했다..

개혁시대, 질밥의 등장

1998년 수하르토 퇴진 후, '개혁(Reforamsi)' 시대가 열리면서 사회변혁이 급진적으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개혁' 은 국가의 통제와 폭력, 사회의 억압으로 지탱했던 수하르토 신질서 체제가 만든 사슬을 푸는 작업이었다. 신질서 체제를 해체하는 핵심은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풀어 여러 지역 단위에 자치를 허용하는 일이었다. 2005년 말부터 잇달아 실시한 지방자치 선거들은 수십년 동안 이 나라가 겪었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었다.

당시 수하르토 세력하에 있었던 많은 엘리트들이 '개혁세력'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계에 등장했다. 그들은 수하르토 시절 정치공작을 펴던 이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이슬람집단 같은 보수파의 환심을 사려고 보수 이슬람 입맛에 맞는 사회적 의제를 내걸기도 했다. 이슬람 세력이 정치 공백을 대체하면서 이슬람 정당은 물론 이슬람수호전선(FPI)과 인도네시아 무자헤딘 등 과격하고 강경한 이슬람 단체들이 세력을 떨치게 된다. 또한 이슬람 정당들이 국회에서 교섭권을 가질 만큼 의석 수를 확보한다. 그래서 관습법이나 샤리아 등에 포함된 보수적인 도덕 규범을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었다. 이런 현상은 아쩨에 두드러지는데 이 생활규범들은 여성을 눈에 띄게 차별한다. 특히 반뜬주 땅그랑, 서부자바주 찌안주르, 서부수마트라주 빠당 남부술라웨시주 등 종교적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강한 지역에서 이슬람 규범이 강제됐다.

1945년 독립 후 인도네시아 헌법은 샤리아를 비롯한 종교규범을 배제해왔지만 최근 도입한 몇몇 사회 규범의 뿌리가 이슬람 보수주의에 있음은 분명하다. 2002년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 아부바까르 바아시르 비롯한 이슬람 강경파는 국민협의회(MPR)에서 모든 무슬림이 샤리아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자카르타 헌장' 을 헌법에 집어넣으려

다 실패했다. 국가 차원의 샤리아 운동이 실패하자, 지역을 기반으로 삼아 곳곳에서 따로 움직이며 꽤 성과를 거둔 이슬람 보수주의 운동이 서로 연계하고 있다.

사회학자이며 개혁적인 이슬람 신자인 줄리야 수르야꾸스마는 이렇게 말한다. "머리에 뭔가를 덮어쓴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신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인 힘은 내면에서 나오지, 이슬람 옷가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관심이 없다. 요즘들어 그걸 쓰게 하느냐 마느냐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정치가 됐든 패션이 됐든 종교의 문제는 우리 정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님은 분명하다"

줄리아는 일체감과 획일화가 강요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 후, 여성은 전통의상인 끄바야(kebaya)에서 부사나 무슬림(Busana Muslim)으로, 남성은 사파리 복장에서 바주 꼬꼬(Baju Koko) 로 다시 획일화됐다고 지적했다.

Kebaya

Baju Koko

이슬람 문화의 상업화

"왜 질밥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자카르타에 근무하는 한 직장 여성은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얼굴 선을 바꿀 수 있어 예쁘게 보인다" 고 답했다. 한 언론사 근무하는 모 여기자는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을 탈 경우 질밥을 쓰면 집적거리는 남자들이 없어 편하다" 라고 말했다.

2010년 전후로 개인소득 증가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문화적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이슬람 문화의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슬람 패션산업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이슬람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미용실인 살론 무슬리마(Salon Muslimah)도 등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패션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정부도 이를 수출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라마단에 회사, 동창회, 친지 모임 등을 내걸고 식당에서 부까뿌아사(Iftar) 회식이 한 달 동안 계속되는 등 부까뿌아사 문화가 확산되는 반면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질밥 패션의 뒤에는 이슬람을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상인들과 이를 확산시키는 미디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질밥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할 시기다.

CNN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할 곳 50

1. 성산일출봉

성산 일출봉은 5,000여년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화산폭발로 생긴 것으로 현재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동식물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출이 특히나 유명한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는 30분정도 걸린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2. 꽃지 해수욕장

안면읍에서 4 km정도 떨어진 이 곳은 드라이브를 하거나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구경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특히나 할미 바위와 할아비 바위라고 알려진 두 바위들이 자리하고 있어 특이한 광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신라시대에 유명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돌이 되어 할미돌이 되었고 할아비는 돌아와 그녀의 사랑에 감동해 바로 건너편에 자리잡아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온다.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4리

3. 경상남도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남해군의 서쪽에 위치한 다랭이 마을은 100개가 넘는 계단식 논과 밭으로 유명해 수많은 사진작가들의 명소로 자리잡힌 곳이다.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4. 부산 광안대교

다이아몬드 다리로도 알려진 광안대교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다리로 산과 해변 그리고 도시의 불빛들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명소이다. 다리를 직접 건너기는 힘들지만 해가 지면 어디에서나 반짝이는 불빛들로 이미 부산의 명물이 되었으며 무려 100,000개가 넘는 색색깔의 불빛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다이아몬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5. 진해 경화역

이 작은 기차역은 해마다 관광객들과 아마추어 사진가들로 붐비는 곳이다. 수많은 벚꽃들이 분홍색 샤워를 일으키며 기차가 오는 순간에는 마치 벚꽃잎 터널을 만들어 동화와 같은 분위기를 선사한다.
여좌천 (이 목록의 17번)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코스이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6. 우포늪

총 2,314 제곱킬로미터의 우포 늪은 한국에서 가장 큰 늪이며 그 크기는 여의도의 세 배 정도이다. 1억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곳은 1,500여종의 동식물의 고향이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도 대다수이다.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늪을 구경할 수 있으며 낮게 나는 철새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맛볼 수도 있다.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7. 전남 신안 증도 염전

송나라 시대의 보물들이 발견된 이 섬은 깨끗한 바닷물과 예쁜 해변 그리고 염전으로 유명하다. 거대한 염전은 주변의 해양 동식물을 공부하는데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슬로우시티로 선정되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잠깐은 쉴 수 있는 여유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다.
>> 전남 신안군 증도면

8. 설악산 신선대 공룡능선

설악산의 공룡 능선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체력뿐 아니라 아마추어 이상의 등산 실력을 길러 놓아야한다. 공룡의 등을 닮았다 하며 공룡 능선이라고 일컬어져왔지만 설악산의 신비로운 안과 밖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오르기가 만만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경로인 공룡 능선은 1,200 미터를 자랑한다.
>>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9. 울릉도 해안도로

신비의 섬 울릉도는 서울 시민들이 주말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나들이 명소로 자리잡았다.
신비한 바위들과 해변 그리고 절벽은 해안도로를 더욱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주어 다시 한번 발길과 눈길이 가게 하는 곳이다. 두세번 방문해도 그 느낌과 신비로움이 늘 새로운 곳이다.
<< 경북 울릉군 울릉읍

10. 제주도 섭지코지

제주도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할 것이다. 볼 것이 워낙 많기 때문.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지 말고 방문해야하는 곳이 바로 섭지코지다. 고여함과 로맨틱함으로 유명한 곳으로 유채꽃이 만발하기도 하고 최고의 사진찍기 명소로도 자리잡았다. 이 목록의 1번인 성산일출봉을 가장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섭지코지이다. 최초의 한류드라마로 알려진 송혜교, 이병헌 주연의 “올인” 도 이곳에서 찍게 되면서 한류 팬들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저희 극단 까치동에서 2013년 자카르타 인형극 페스티발에 참여하게 되어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사 일정은 9월 1일 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현재 참여팀은 68개국 입니다.
68개국 공식 경쟁부분에서 한국 대표로 저희가 공연하게 되었구요,

자카르타 인형극 페스티발에 초대합니다

저희 한국팀 공연은 9월 2일 오전 11시 씨어터5에서 공연 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한인분들께 많은 홍보 부탁드리며 모든 한인분들과 함께 공연관람을 원하오니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인형극은 "호랑이님 나가신다" 라는 작품구요. 우리나라 전래도와를 토대로 한지로 만들어진 인형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한복, 전통음악을 눈과 귀로 느끼시며 한국의 멋을 추억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생활속 습기제거 요령

촛불 활용 해보세요.

양초는 제습 효과와 탈취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비 오는 날 향긋한 아로마 향초를 켜두면 흐르는 빗소리와 함께 은은한 촛불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습습하고 눅눅한 기운도 사라지고 물비린내도 없어진답니다.

양념통에는

나무 이쑤시개를 고춧가루, 소금통에 넣어 제습 효과를 높여 주세요. 단, 전분 이쑤시개는 제습 효과가 없습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하셔야겠지요? 쌀을 넣어두어도 습기가 제거되어 소금이 솔솔 잘 나온답니다.

옷장엔 신문지를 넣어 주세요.

서랍장, 옷장, 신발장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벌레들을 막는 방충 효과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숯을 두세요.

숯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는 독소를 흡착하는 기능이 뛰어나 습기제거, 탈취, 미생물이나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는 물론, 공기 정화 효과도 있습니다.

천연 습도 조절기인 솔방울을 이용 해보세요.

마른 솔방울을 습기 찬 날 방안 이곳저곳에 던져 두면 물을 머금은 솔방울이 신기하게도 차츰 오므라들고, 그러다 건조한 날에는 빨아들인 물기를 다 뿜어내고 활짝 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과 신발장에 보관할땐 건조 후 넣습니다.

젖은 구두나 운동화는 바람에 잘 말려 보관하고 잘 마르지 않을 때는 드라이어로 말린 후 신발장 안에 보관합니다. 벽돌을 젖은 신발이나 우산 밑에 깔아두면 습기를 흡수해 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지를 구겨 신발 안에 넣어두면 냄새제거는 물론 습기까지 완벽하게 빨아들인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과자 · 김 등에 들어 있는 방부제 실리카겔은 훌륭한 습기 제거제입니다. 단 제습량이 적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밀폐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말이나 신발 안 등 좁은 공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원두커피 찌꺼기와 녹차 티백. 커피 찌꺼기의 유지방이 습기를 흡수하여 습기 제거와 탈취에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 할 점은 움푹한 그릇에 담아두면 커피 찌꺼기에 곰팡이가 피어 오히려 좋지 않으므로 잘 건조 되도록 넓은 그릇에 담습니다. 통풍이 가능한 장소에 둬 자연적으로 티백을 말려가면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바다'에 대한 단상

행복 에세이

서 미 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답답증을 이유로 우리는 늘 바다를 그리워한다.
언제나 하늘과 마주하고 있는 바다는 하늘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걸까?
하늘이 쾌청하고 맑으면 바다도 상큼해 보이고, 하늘이 잿빛으로 우울해 보이면 바다도 흐릿하고 어두워 보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원래 '바라다' 의 준말이라고 한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다' 보면 바다가 옜다 '받아' 하고 던져줄지도 모른다는 혼자만의 우스운 상념에 빠져본다. 하늘과 바다가 한마음으로 만들어 주는 넓은 품은 우리에게 영혼의 쉼터가 되어주기에 살아가는 일이 뒤엉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수평선으로 확 트인 넓은 시야, 끝없는 망망대해인 바다를 보러가자. 사소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 우리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기에.....

바다를 보고 있으면 헝클어지고 무거운 것들은 다 달아나 버리고 잠시 그 품에 푹 빠져 쉬면서 위로를 받고 기운을 차리게 된다. 텅 비어있어 무한한 평화와 편안함을 절실하게 알려주는 바다이기 때문일까.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과 이기를 쏟아버리고 비워내어 청정한 모습으로 맑게 살라며 속삭이는 듯하다.
바다는 이세상의 온갖 물을 다 수용한다. 강물뿐 아니라 비와 눈(雪)과 모든 생활오수들 마저 거부할 줄 모른다. 바다는 더러운 것은 스스로 자정하여 다 걸러내고 맑은 것은 우주로 흘려보내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근원이 된다.
그 넓은 품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와 바다 식물이 자유롭게 자란다.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흐르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가뭄과 지진에도 그곳은 마르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다.

바다는 대체로 언제 보아도 고요해 보인다. 아침이나 저녁에 보아도 넓은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한 위상을 잃지 않는다.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위로 가끔 유람선이 지나가고 한가롭게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갈 뿐이다. 바다는 푸른 물과

시원한 물이 어우러져 온갖 오염된 것을 정화시켜 준다. 바다의 품은 어쩌면 그렇게 넓은지, 무엇이든 부드럽게 안아주고 어떤 상처도 치유해서 소생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오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고 좀처럼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그 깊은 속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바다가 가끔은 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여름이 시작되고 열대성 태풍이 불어오면서 조용하던 바다는 갑자기 포효하는 짐승과도 같다. 거칠게 괴성을 지르며 울기도 하고 길길이 날뛰며 서슬 푸른 가슴을 헤치고 하얗게 경련을 일으킬 땐 섬뜩한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태풍이 비구름을 몰고 와 바다를 자극하는 건 조물주의 깊은 사랑이 숨어있음을 알 수 있다. 파도를 일으켜 해일을 만드는 건 바다 속의 생명들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육지엔 온갖 공해 물을 휩쓸어 가고 생명수를 저장 하게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자연의 축제 앞에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힘없이 무너지고 허탈해지기도 한다. 태풍은 대체로 한밤에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잔인한 공격수다. 그러다가 날이 밝고 아침이 오면 바람이 남긴 가공할만한 참상에 사람들은 울상을 짓지만 이미 실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시침 떼며 다시 푸른 파도를 찰랑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바다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봄 바다는 푸른 새싹처럼 얼굴빛이 맑고 곱다. 나른한 봄기운속에 사방에서 꽃이라도 만발하는 날이면 바다도 약간 들떠있는 듯 아련한 물안개를 피워 올려 설렘을 표현한다.
해 뜨는 아침의 노오란 잔물결은 유치원으로 달려가는 귀여운 아이들 모습과도 닮아있다. 맑은 날 정오, 햇살이 톡톡 튀는 바다는 전신에 찬란한 보석을 휘감은 귀부인을 대하는 듯 눈이 부시다. 그런 날은 바다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들뜨고 공연히 마음이 달아올라 바다 길을 따라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바다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도 닮았다.
삶에 지친 피서객들을 말없이 받아들여 그 품에서 젖은 땀방울을 씻어주고 신선한 에너지를 듬뿍 제공한다. 여름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은 밝고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들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 긴 장마속의 바다는 사랑의 상처를 품고 사는 비련의 여인처럼 짙은 해무(海霧)속에 젖어 운다. 하늘이 높고 청명한 가을바다 앞에 서면 누구나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기도 한다. 흰 구름이 가볍게 움직이면서 하늘은 더 높아지고 수평선은 더 멀어지면서 주위를 배회하는 갈매기들도 사색하듯 깊은 명상에 잠긴다.

바람이 날을 세우는 썰렁한 엄동속의 겨울 바다는 검푸른 눈빛으로 착 가라앉는다.
겨울 바다는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더 크고 무거운 느낌으로 자신의 거대한 위용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이때의 바다가 어쩌면 바다의 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람의 마음처럼 바다의 모습도 이토록 변화무쌍하다. 살면서 힘들 때 안기면 말없이 품어주고 토닥여 주는 우리 어머니의 품속 같은가 하면 찰랑찰랑 출싹대는 아이 같기도 하고 더러는 세상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창조주의의 분신 같은 느낌도 든다.

하늘빛을 닮은 바다, 무한한 생명의 근원지인 바다를 보며 평화를 얻고 그 바다를 닮고 싶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닮고 싶다. 친구들과 말없이 바다로 향해있는 창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본다. 우리 마음속은 하나같이 바다에서 평화를 얻고, 또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기원한다. 우리들 마음은 어느새 바다 위를 달리고 또 달리며 인간사에 대한 깨우침을 갈망하고 있다.

연재 Jalan-jalan Jakarta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신적 신전

국립박물관 Museum Nasional

인류와 문화의 역사 여행(신관 2층 앞쪽)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어느 사회에도 구성원들이 창조한 고유 문화가 있다. 지금까지 이 문화를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켜 온 것이 사회발전의 과정이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계속되어 온 이 과정에 의해 인류의 역사는 변혁되어왔다.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민족의 생활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유형화 되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곳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개체로서의 '자아' 도 한층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신관 2층 전시관을 통해 인류의 지식과 과학기술 및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인도네시아 인들의 문화 창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시관 앞쪽은 문자 및 언어, 법, 천문학 및 항해, 건축, 치료 및 식품가공, 생산 도구, 의사소통 도구, 교통수단, 경제 등 소주제로 나누어져 전시되어 있다.

1. 인도네시아 문자 및 언어 :인간이 만든 문화적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은 언어나 문자 같은 상징이다. 인간은 상징을 통해 지나간 세대가 남긴 문화를 배우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후세에 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도 일찍부터 문자와 언어가 있었다. 이는 묘비와 비문, 유리 장에 보관되어있는 각 지역에서 유래된 기록과 유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도에서 유래된 빨라와(Pallawa), 나가리(Nagari), 타밀(Tamil)이라는 문자는 5세기~ 15세기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발전되어 많이 사용되었다. 그중, 빨라와 문자는 힌두교나 불교를 믿는 동남아로 전파되어 각 지역마다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대의 자바어 · 순다어 · 발리어에 영향을 미쳤다. 2층 전시실에 들어가면 산스크리트어와 빨라와 (Pallawa) 글

자로 적힌 유빠(Yupa) 비문이 눈에 들어온다. 동부 칼리만탄에서 4세기에 세운 꾸따이 (Kutai)왕국에서 유래된 이 비문은 왕족 가계도와 왕국을 잘 다스린 물라와르만 (Mulawarman)왕에 대해 적혀 있음으로 물라와르만 비문으로 알려진다. 7개의 유빠비문 중 해독된 것은 4개인데 모두 물라와르만에 대한 것이다. 즉 꾸따이왕국을 다스릴 때 브라만 승려계급에게 20.000마리의 소를 주었다는 이야기 등이다. 또한 이 비문은 물라와르만 왕은 꾸따이왕국을 건설한 꾸둥가 왕의 손자라고 전한다. 그 외에 따루마느가라 (Tarumanegara)왕국을 다스렸던 뿌르나와르만 (Purnawarman) 왕에 대한 비문 모형에는 위스누 신과 같은 왕의 발자국과 그 옆에 왕을 칭송한 가사가 산스크리트어와 빨라와 문자로 적혀 있다. 남부 수마트라에서 제일 큰 왕국이었던 스리위자야(Sriwijaya)에서 유래된 비문은 신의 화신인 왕이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자를 저주하는 글도 이들 문자로 적혀 있다. 16세기 때 람뿡 (Lampung)과 바딱 (Batak), 부기스(Bugis)지방에서 'posca Pallawa(빨라와 후에)' 란 문자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불교 비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Nagari 문자가 8세기경 전파되었다. 깔라산 (Kalasan)비문에 산스크리트어와 Nagari 문자로 타라(Tara)여신을 위하여 족자 샤일렌드라 왕조인 라까이 빠낭까란이 신성한 건물을 지어주었다고 적혀있다. 전시된 물소 늑골로 된 부적은 1934년 네덜란드인이 Nederveen Cappel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원수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이 부적은 바딱 까로(Batak Karo) 문자로 마법 주문이 적혀있고 뒤쪽에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남부 인도의 Tamil Nadu와 스리랑카에서 많이 사용하는 Tamil 문자는 11세기 때 인도에서 온 상인들이 북부 수마트라에서 무역하면서 전파하였다. 이처럼 인도어뿐만 아니라 아랍어와 중국어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들은 5세기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여 14세기 때는 아주 많아졌다. 인도네시아 –중국 간의 문화교류는 비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어는 복잡하고 4000개나 되기 때문에 중국어 비문은 모두 중국인이 쓴 것이다. 대체로 중국어로 적혀 있는 유산은 고인을 기념하는 묘비와 신주(神主), 화폐, 장식품이다. 동부 자바의 그르식 (Gresik)에 있는 레란 (Leran)에서 발견된 Fatimah binti Maimun 의 죽음에 대해 아랍어로 적혀 있는 비문이 발견됨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처음 들어온 년도가

1082년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쩨(Aceh)에서 온 Fatimah는 마자빠힛 왕조의 하얌 우룩(Hayam Wuruk)왕과 결혼하려고 했으나 콜레라로 죽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동부 자바의 '멈추다' 를 뜻하는 레란 마을에 묻히게 된다. 이 이슬람교의 묘비는 끝부분이 힌두교 사원의 지붕과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힌두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랍어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전되어 자바어로 발음되면 뻬곤(Pegon), 말레이어로 발음되면 자위(Jawi) 또는 아랍-말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에 영향을 미친 문자는 라틴어이다. 타문화의 영향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쉽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문화를 재창조하는 역량을 가진 주체적인 민족임을 알 수 있고, 비문을 통해서 본 옛 문자들은 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2. 인도네시아에서 법체계 :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인도네시아에는 제도문화인 법이 7세기부터 시작되었다. 법이 없었던 시절에 종교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관습법을 각 민족들이 따랐다. 차차 힌두교와 불교,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영향으로 관습법이 더 풍부해졌다. 북부 수마트라의 바딱족의 관습에서 유래된 빠날루안 (Panaluan)지팡이에는 조상에 대한 의식과 기우제때 사용했던 지팡이도 있다. 지팡이에는 바딱 조상과 가계도 조각이 있다. 문서 문화가 발전한 민족은 법률 책에 기록했다. 전시된 자바와 발리의 법률 책을 보면 법원의 판단 절차와 형법, 민법에 대해서 적혀 있다. 또 서부 수마트라의 미낭 Minang)과 아쩨(Aceh) 지역은 이슬람교와 코란, 예언자의 기록을 참고하여 법을 제정했다. 중부자바에서 발견

된 우루두 끼둘 (Wurudu Kidul)비문에 이곳에 살았던 다나디(Dhanadi)가 자신의 주장처럼 인도네시아 자국민임을 증명하는 글이 고대 자바어로 적혀있다.(922년)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나 행위를 규정하는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법질서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옛사람들의 삶과 윤리를 엿볼 수 있다.

3. 천문학 및 내비게이션 :인도네시아 인들은 그 옛날부터 태양과 달, 행성, 별 천체의 순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인도와 아랍, 유럽에서 받은 영향으로 천문학과 내비게이션 체계가 더욱 발전하였다. 천문학을 바탕으로 달력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음력과 양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에 따라 다른 달력을 만들어 왔다. 예를 들어 자바의 쁘라나따 망사(pranata mangsa), 발리의 띠까(tika) 또는 와리가 (wariga), 바딱의 빠르할라안 (parhalaan) 달력 등이다. 나무로 된 발리의 띠까달력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주체를 정할 때 사용한 달력으로 결혼식과 송곳니를 갈아 평평하게 하는 성년식인 뽀똥기기(potong gigi), 시신을 화장하는 장례식(Ngaben), 주택지을 택일을 위해서 사용한다. 달력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무당과 브라만 승려가 만든다. 놋쇠와 유리, 철로 된 나침반이 전시되어 있는데, 19세기가 되어 나침반과 지도를 같이 사용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별과 주위 환경을 관찰하거나 파도소리를 듣고 방향을 정했다. 45 X 35cm 종이로 된 말루꾸(Maluku) 지도를 보면 적도가 말루꾸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지도는 1729년에 Pierre van der Aa가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것은 1861년이다. (대동여지도는 정밀하고 100리마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목판으로 인쇄) 또한 탁월한 항해술로 동아시아의 무역 권을 독점한 해신 장보고가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준 나침반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통일신라시대인 828년)

Sextant

4. 건축: 선사시대 때는 동굴에 살았고, 그 후에는 나무와 잎, 흙, 돌을 사용하여 복잡한 집까지 만들었다.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각 민족의 고유의 건축 디자인을 다음세대에 물려준다. 그것이 바로 전통가옥이다. 종교와 관습, 외국 문화까지 인도네시아 건축에 영향을 주었다. 동부 자바 Jalatunda 우물에서 발견된 최고(最古)의 양각을 보면 몇 명의 승려가 제자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장면을 보여준다. 육각형 집의 지붕모양과 기둥이 보인다. 14세기~ 15세기 때 지은 집으로 자연미와 단순하면서도 장중한 건축미가 돋보인다.

5. 치료 및 식품 가공: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 자연을 사고력과 도구를 이용하여 생활에 유리하도록 식품과 약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이 문화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구석기시대를 지나 숲을 태우고 농경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며 조류와 개, 돼지를 잡아먹었다. 한편,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나 조개를 먹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토로 된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다. 전시된 도자기는 소박하고 질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차차 기름을 사용하고 튀기는 방법, 햇빛에 말리거나 발효하는 등의 더 발전한 식품 가공을 알게 되었다. 양념을 치기도 해 음식 맛이 더 다양해졌다. 안산암으로 된 룸빵 (lumpang; 삼벌 만드는 움푹 파진 돌 접시)과 사발은

중부자바에서 발견되었고 식품과 약을 갈아 부수기 위해서 사용했다. 룸빵은 지금도 사용하는 식품가공도구이다. 또한 다양한 자원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약, 피부병과 동물에 물린 상처를 회복시키는 약을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인니국민에게 사랑받는 그 유명한 자무(jamu)이다. 전시된 자무(Jamu) 약상자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남부 수마트라의 빨렘방 (Palembang)에서 생산되었다. 빨간색과 금색으로 된 사각모양으로 층층이 이루어져있어 상승감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색깔과 형태로 미루어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마법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었다. 조상의 넋이나 유래된 사물을 통해서 병을 회복시켰는데 이러한 사람이 '두꾼(dukun)'이다. 발리에서는 '발리안(balian)', 수마트라에서는 '다뚜(datu)'라고 한다.

6.방어 도구 : 시대별 옷과 갑옷이 전시되어 있다. 선사 시대 사람들은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고 후에 나무껍질과 식물의 섬유를 사용하였다. 더 발전하면서 목화를 심고 채집하여 옷을 만들었다. 그 외에 누에를 기르기도 했다. 나아가 옷은 보호기능 뿐만 아니라 문양에 따라 입는 사회 지위가 달라 계층의 상징이 된다.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는 tenun, ikat, songket, batik 등, 각각 특징을 가진 전통복장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복장뿐만 아니라 칼과 소총, 권총, 대포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다. 옷처럼 무기도 신분과 의식에 따라 달라 사회적 위세 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끄리스 (keris)란 칼은 남자를 상징하거나 결혼식 때 신랑이 뒤쪽 허리에 끼워 넣는다. 기개(氣槪)가 느껴지고 각 지역마다 끄리스에 새겨진 문양이 다르다. 파푸아의 아스맛 (Asmat)족의 방패는 제기능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조각으로 유명하다. 조상이 그려 있는 전시된 방패는 조상들이 사는 천국을 나타내는 흰색, 인간의 세상을 나타내는 빨간색, 악마가 사는 지옥을 나타내는 검은색으로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방패를 쓰고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방패를 쓰고 전쟁 춤을 춘다. 1950년 국립박물관의 수집물로 등록되어 있다. 아스맛족의 삶과 예술은 언뜻 보면 단순해보이지만 거대한 논리와 자연의 질서 속에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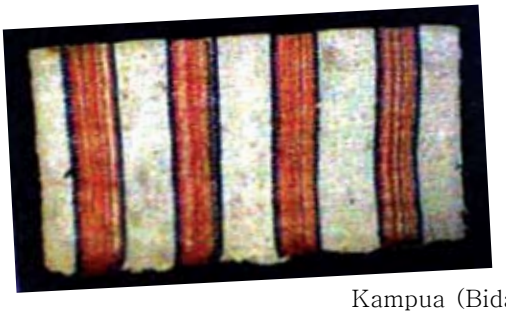
7. 생산도구: 유리 장에 돌도끼와 뼈로 된 무기, 창 등 구석기와 중석기, 신석기시대 만들어 사용했던 생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옛날 사람들이 대나무 창과 나무통, 화살 끝에 날카로운 조각을 붙여 무기로 사용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있는 농업 국가이다. 따라서 쌀을 찧는 르숭 (lesung)과 벼를 가는 칼인 아니아니 (ani-ani)등, 농사 장비들도 전시되어 있다. 말루꾸와 파푸아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사고를 만드는 장비도 있고, 동전을 만드는 틀도 있다. 그 외에 식품, 실 물레바퀴와 직물 직기, 물레 성형, 금속세공 도구, 삐낭 (빈랑나무) 열매를 깎는 가위와 도자기 만드는 장비, 망치, 바띡 장비인 짭(cap)과 짠띵 등 생산도구도 보관되어 있다. 이 도구들은 경제적 자산이 되었다. 그 다음 작업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했다. 구리로 만들어진 바띡 도장 짭은 1850년대 자바의 북쪽 해변에서 시작되어 19세기 말에 중부자바로 전파되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며 바띡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직물이 되었다. 전시된 짭은 유명한 '빠랑 루삭 (parang rusak)' 문양으로 힘, 권위의 상징이다. 옛날에는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다. 동전 주형은 한 주형을 사용해서 양면의 동전 3개를 만들었다. 한 면은 아랍어로 'wau', '1267

년’ 이 거꾸로 적혀 있고, 다른 면은 아랍어로 적힌 ‘Bandar Aceh Darassalam’ 과 작은 원들이 있다. 이로서 인도네시아와 아랍이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생산도구 중에서 짭 외에도 르숭. 아니아니, 물레, 사고 만드는 도구 등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생산도구이다.

8. 의사소통 도구: 옛날에는 사람들이 소리로 의사소통을 했다. 동부 자바 마두라 (Madura)에서 발견된 끈똥안 (kentongan)은 자바와 발리에서 주민을 부르거나 재해 경보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된 북이다. 또 간접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써 편지가 있었다. 종이와 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문에 메시지를 새겼다. 돌뿐만 아니라 구리와 종려나무 잎에다가 글을 적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시된 사원 종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신자에게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종소리로 전하기도 했다. 수려한 모습으로 종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가루다를 보면 종소리는 신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여운이 들리는 듯하다.

9. 교통수단: Lete 배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데 마두라에서 나온 Lete 선박은 100~500톤 무게로 섬 간의 운송한 통상용 배다. 말과 소, 물소가 끌어다니는 수레는 현대수레에 비해 브레이크가 없었다. 이 수레는 족자에서 발견되었다. 다이내믹한 인간은 움직여야 한다. 처음에 말과 당나귀, 낙타, 소, 코끼리를 타고 다녔다. 그 다음에는 마차를 만들었다. 육상 운송 외에 배와 선박을 만들며 강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양 운송을 발전시켰다. 전시된 배를 보면 인도네시아 인의 조상은 다른 섬과 해외를 가로질렀던 뱃사람임을 알 수 있다. 기계 혁명에 따라 증기기관과 연료,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상선을 많이 만들었다. 20세기 들어 짧은 시간에 먼 곳으로 가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인류의 문명사는 결국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현대 교통수단과 함께 아직도 옛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지역이 많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이다.

10. 경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대외무역과 세금으로 국가경제를 유지해왔다. 왕족시대에는 백성들이 국가와 왕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우쁘띠 (upeti)’ 라는 기부금 바쳤다. 남부 칼리만탄 반자르마신 왕국에서 사용한 화려하게 장식된 큰 저울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농산물에 세금을 매기는데 사용하였다. 즉 한쪽 저울에 왕이 앉고 다른 쪽에 왕의 몸무게만큼 농산물을 올려야했다. 또 공주 결혼식 때 공주의 몸무게만큼 지참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몸이 무거운 것이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놋쇠로 된 ‘Gobog’ 동전 (13-16세기)은 마자빠힛 왕국에서 사



Kampua (Bida)

용하였다.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있으며 스마르(Semar)와 끄레스나 (Kresna)와양과 코끼리, 뱀 문양이 있다. 스마르는 유머와 지혜를, 끄레스나는 교육과 용감을 상징한다. 코끼리는 성스러운 동물이며, 뱀은 지구와 하늘을 다스리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열대지방에는 뱀이 참 많다. 그래서인지 농부에게는 운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한다. 뒤쪽에는 이슬람교의 신앙 고백이 아랍어로 적혀 있으며, '삐시스 (Pisis)' 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문양으로 미루어 마자빠힛 왕국이 힌두교를 숭상했음을 알 수 있고, 이슬람교도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속화폐로 미루어보아 마자빠힛 왕국시대에 상공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이 시기에 상품 화폐 경제의 진전과 상업자본의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동전 해동통보는 1102년 고려 숙종 때 이미 주조되었다. 19세기에 사용된 'Kampua (Bida)' 화폐는 직사각형으로 된 직물로 남부 술라웨시의 부똔 (Buton)에서 화폐로 활용되었다. 문양과 수량은 지도자가 정하고 왕궁의 여성들이 이 직물을 짜서 만들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문양을 다르게 넣었다고 한다. 깜뿌아 화폐를 위조한 자는 사형을 받았다. 그 옛날에도 위조지폐가 있었고, 옛 사람들이 질서유지를 위한 시장의 규율이 엄격함에 놀라웠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럴 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과 지도층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옛 사람들의 경제사범에 대한 법질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문화는 생태계라는 환경에 대한 적응 메커니즘역할을 한다. 문화는 다양성 속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인류의 미래는 보존 가능해 진다. 국립박물관에서 새로운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다양한 인도네시아 문화를 대할 때 우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박물관들은 방대함과 건물의 세련됨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국문화의 포로수용소' 라는 말이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다민족이 공동운명체로 이토록 오랜 역사를 엮어온 나라는 드물다. 문화와 역사의 자취가 곳곳에 널려있는 박물관에서 가슴이 소리 없이 외친다. 평범하고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게 진열되어 있는 유물로 인해 진실과 오리지널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어제의 파도소리와 함께 늘 다음의 파도소리를 들어야한다고. 그리고 아는 것만큼 느낀다고.

Museum Nasīonal

Jl. Merdeka Barat No.12 Jakarta Pusat
Tel : 3811551 / 3447778
화 – 금: 08:30–16:00
토 – 일: 08:30–17:00
월, 공휴일 : 휴관
입장료 : Rp 5000 (성인), 2000 (어린이)
/ 외국인 10.000
한국어 가이드: 셋째 토요일 9:30 (접수 인도웹)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 3,
Busway SMK 57 Ragunan, Jakarta Selatan

Tel. (+62 21) 7883 9597
Fax. (+62 21) 7883 9598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신 사회단체법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2013년 7월 사회단체(사회조직)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신 사회단체법을 공포함으로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1985년 제8호가 폐기되고 신 사회단체 법률("신 사회단체법")이 발효되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동안 프로 콘트라 논난이 많았던 법률이다. 신 사회 단체법을 반대하는 측은 집권자와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고, 찬성하는 측은 일부사회 단체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사회 단체법에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전체 한인 사회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사회단체 설립, 조직, 운영, 가입, 자격 등에 관하여 14개 조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법의 외국인이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로 정부령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년에 들어와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현지 실정으로 미루어 봐서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정부령은 외국인의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을 더 스트릭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법률의 특징은 그 강제성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과 다르게 준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범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72년 조직된 인도네시아 한인회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단체는 신 사회단체법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신 사회 단체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 사회 사회단체법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신 사회단체법에 따라 사회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 사회단체들이 신 사회단체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 사회단체법에 따라 조직을 재정돈하여 현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 사회단체법을 설명한다.

1. 법규 상 사회단체로 구분되는 단체

사회학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는 모임은 사회단체로 보나 법학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원을 유기적으로 얽어 사회활동을 하는 통일된 집합체를 뜻한다. 신 사회단체법 상 사회단체로 구분되는 한인 사회단체는 한인회, 부인회, 청년회, 상공회의소, 무역인협회, 체육회, 문인협회, 예술인협회, 업종별 협의회, 음악단체, 체육단체, 미술단체, 동호인회, 동문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 현지에서 조직된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조직된 한국 사회단체의 인도네시아 지부도 포함되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사회단체 전체가 신 사회단체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2. 영리 목적 및 자동회원제 사회단체 설립 금지

사회단체는 반드시 비영리 목적이어야 자원제이어야 한다. "예" 를 들면
"특정 업종 종사자는 특정 업종 협의회의 자동 회

원 혹은 회원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금한다.

3. 사회단체의 목적

3.1. 사회 구성원의 특정 분야 참여 및 노력 증진
3.2. 사회 봉사
3.3. 유일신 신앙 가치 보호
3.4. 사회 규범, 가치, 도덕, 윤리 및 문화 보호
3.5. 자연 자원 및 환경 보호
3.6. 사회 총화, 협력 및 관용 구현
3.7. 민족 연합 구현
3.8.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

4. 사회단체의 기능(임무)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임무)을 수행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4.1. 회원의 권익 보호와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을 한다.
4.2.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회원을 교육하고 지도한다.
4.3. 사회의 염원을 표출한다.
4.4. 사회 활성화 노력을 한다.
4.5. 사회에 봉사한다.
4.6. 민족 총화를 위한 사회 참여를 고취한다.
4.7. 사회 규범, 가치, 도덕, 윤리 및 문화 보호

5. 사회단체 설립 목적 정관(회칙)에 명시 의무

6. 사회단체의 조직(활동)범위

6.1. 전국 단위 조직 : 전국 전체 주(Provinsi)의 최소 25% 이상 주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2. 주 단위 조직 : 해당 주의 최소 25% 이상 시/군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3. 시/군 단위 조직 : 해당 시/군의 최소 1개 구/면에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사회단체 설립(조직)권자

외국인에게는 사회단체 설립(조직)을 불허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설립은 인도네시아 국민 최소 3명 공동으로 설립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재단법인(Yayasan)으로 사회단체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사회단체 설립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8. 사회단체의 종류

사회단체의 법적인 신분을 기준하여 사회단체는 법인 사회단체와 비법인 사회단체로 구분하며, 회원 유무를 기준하여 회원 사회단체와 무회원 사회단체로 구분하며, 법인 사회단체는 일반 사회단체와 재단법인 사회단체로 구분하며, 일반 사회단체는 회원이 있어야 하며, 재단법인 사회단체는 회원 존재를 불허한다.

9. 일반 사회단체 법인 설립 요건

9.1.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 규정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운영규정을 포함시킨 공정증서 설립 정관
9.2. 활동 계획
9.3. 재정 원천
9.4. 소재증명서
9.5. 납세의무자 등록
9.6.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없다는 확인 각서
9.7. 법무무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 획득
* 법인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을 제정한다.

10. 재단법인 사회단체 설립 및 운영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2001년 제16호와 재단법인법에 관한 개정 법률 2004년 제28호에 의한다.

11. 비법인 사회단체 설립 요건

11.1. 사회단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본 규정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운영규정을 포함시킨 공정증서 설립 정관
11.2. 활동 계획
11.3. 임원 명단
11.4. 소재증명서
11.5. 납세의무자 등록
11.6.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없다는 확인 각서
11.7. 활동 실적 보고서 제출 약속 각서
11.8. 사회단체의 조직(활동)범위에 따라 등록증명서 회득, 전국 조직은 활동 분야 관할 장관으로부터, 주 조직은 주지사로부터, 시/군 조직은 시장/군수로부터 획득.

12. 사회단체의 권리

12.1. 사회단체를 외부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2. 사회단체의 이름과 로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3. 조직의 목적과 꿈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4.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5. 사회단체의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2.6. 조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인, 다른 사회단체 혹은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사회단체의 의무

13.1. 사회단체의 목적에 맞은 활동을 해야 한다.
13.2. 인도네시아 통일국가 보존 및 민족 총화를 지켜야 한다.
13.3. 종교, 문화, 도덕, 윤리 및 예절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에 유용한 사회단체가 되어야 한다.
13.4. 사회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속에 평화를 이뤄야한다.
13.5. 사회단체의 제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용해야 한다.
13.6. 국가의 목적 달성에 참여해야 한다.

14. 사회단체의 최소 임원

14.1. 전국 단위 조직 사회단체는 본부 및 각 주지부에 최소 각각의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둬야 하며, 주 단위 조직 사회단체는 본부 및 시/군 지부에 최소 각각의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둬야 하며, 시/군 단위 조직 사회단체는 본부에 최소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둬야 한다.

14.2. 임원 개선 시는 개선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임원 개선 내역을 법무부 장관, 관할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관할권에 따라 해당 관공서에 등록해야 한다.

14.3. 설립정관 및 운영규정에 포함 시켜야 하는 필수사항
14.3.1. 사회단체의 이름 및 로고
14.3.2. 법적 소재지
14.3.3. 설립 원칙, 목적 및 직무
14.3.4. 사회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3.5.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사항
14.3.6.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14.3.7. 내부 감독 제도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14.3.8. 사회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15. 정관(회칙) 개정

사회단체의 정관(회칙) 개정은 사회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해야하며, 정관(회칙) 개정 내용은 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권에 따라 법무부 장관, 관할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6. 영리 사업체 지분 보유 가능

사회단체는 비영리 단체임으로 사회단체 자체에게는 영리 사업을 불허하나 영리 사업체 설립은 허용한다. “예” 를 들면 한인회에게는 영리 행위는 불허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17.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

17.1.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재단법인
17.2.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17.3.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18. 외국 재단법인 사회단체의 허가 보유 의무

18.1. 크게 봐서 시작 단계에서 주는 임시 허가서(Izin Prinsip)와 다음 단계는 임시 허가서에 규정된 사항들을 다 갖추고 사회단체를 운영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운영 허가서(Izin Operasional)이다.
18.2. 임시 허가서는 외무부장관이 3년 유효 기간으로 발급하며, 운영허가서는 관할권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가 발급하나 반드시 외국 재단법인 사회단체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에 활동 분야의 협력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19. 외국인 혹은 외국인이 내국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사회단체의 구비 요건

19.1. 재단법인법 상의 제 요건 구비
19.2.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최소 5년 이상 거주자
19.3. 거주허가서 보유자
19.4. 최초 기금 최소 Rp.10억 이상(설립 운영인의 자산 가치 적법성 확인 각서 제출 의무)
19.5. 회장, 서기 및 회계, 이상 3 직책 중 최소 1 직책은 내국인 선임 의무
19.6. 재단법인 사회단체가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체 설립인들의 공동 각서 제출 의무

20.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의 구비 요건

20.1. 해당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최소 5년 이상 활동
20.2. 최초 기금 최소 Rp.100억 이상(설립 운영인의 자산 가치 적법성 확인 각서 제출 의무)
20.3. 회장, 서기 및 회계, 이상 3 직책 중 최소 1 직책은 내국인 선임 의무
20.4. 재단법인 사회단체가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전체 설립인들의 공동 각서 제출 의무

21.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재단법인,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및 외국 법인이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의 의무 사항

21.1. 인도네시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21.2. 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1.3. 인도네시아 사회의 종교 가치 및 문화 전통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21.4. 인도네시아 국가, 민족 및 사회에 유익을 줘야 한다.
21.5. 전체 재정원, 액수 및 사용 내역을 공고해야 한다.
21.6. 관할권에 따라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에 정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인도네시아어로 메스 메디아에 공고해야 한다.

22.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금지 사항

22.1. 인도네시아 법규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한다.
22.2. 인도네시아 국가의 통일성 및 안정을 해치는 활동을 금한다.
22.3. 첩보 수집 활동을 금한다.
22.4. 정치 활동을 금한다.
22.5. 외교 관계를 해치는 활동을 금한다.
22.6. 사회단체의 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을 금한다.
22.7.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 재정 모금을 금한다.
22.8. 정부 시설 혹은 공공 기관의 시설 사용을 금한다.

23.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 제도

23.1. 사회단체 자체 내부 감독 제도를 정관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회, 정부 및 지방정부의 외부 감독 제도는 별도로 정부령으로 정한다.
23.2. 외부 감독 제도 중 사회 감독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범법 사항에 대하여 일반 사회인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게 고발하라고 고발을 강조하고 있다(제55조).

24. 경과 조처

24.1. 신 사회단체법이 발효 되기 전 법인자격을 취득한 법인 사회단체에 대한 존재는 신 사회단체법으로 인정한다.
24.2. 기 발급된 비법인 사회단체 등록증은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일까지 유효하다.
24.3. 인도네시아의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혹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외국 법인 사회단체는 신 사회단체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 및 활동을 신 사회단체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25. 시행 규정 제정 시한

신 사회단체법에 대한 시행 규정은 신 사회단체법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정한다.

여백 찾기

인재 손인식(서예가, 시인)

길이 밀려온다. 2층 테라스에 앉으면 마을길이 와락 다가든다. 바깥나들이를 할 때마다 무시로 거치는 길, 마을을 뒤덮은 숲에 가려 보이는 데라고는 아주 잠깐이고 그나마도 반쪽만 보이는 길, 오가는 차량의 불빛이나 악을 쓰며 내달리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비로소 존재가 좀 더 분명해지는 길, 처음엔 그냥 보이던 그 길이 이젠 보이지 않은 구불구불한 궤적까지 훑으라고 한다.

길의 존재 방식

길은 시다. 파상적으로 대지를 훑는 아침햇살이 새벽안개를 사정없이 쓸어 가도 시샘하지 않는다. 초록의 무성함과 하늘을 다투지 않는다. 무차별로 길 위에 깨지는 한낮의 따글또글한 햇볕을 묵묵히 수용한다. 마을과 숲의 경계를 가뭇없이 허무는 억수비가 쏟아 져도 길은 미동도 일탈도 없다. 석양의 노을이 만상을 붓질해도 다만 여실할 뿐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위함이 곧 스스로 그러한 것임을 명료하게 설법한다. 이국인으로서 첫 번째 이 마을 주민이 된 내게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린다. 내 능력의 수판질로는 따져보기 쉽잖은 길의 도(道)다.

길은 길보다 그 존재감이 반 뼘쯤 앞서는 안산으로부터 시작한다. 안산은 내가 사는 집과는 알맞게 거리를 두고 아늑한 높이로 자리 잡고 있다. 안산은 그 미려한 등을 툭 잘라 길로 내준 미덕을 지녔다. 길은 무시로 오가는 차량들을 내세워 거기 안산 산록에 마을의 관문이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이내 마을을 뒤덮은 숲으로 종적을 감춘다. 숲길에서 잠수를 거듭하던 길은 내가 사는 집 가까이에서 불쑥 그 잠깐을 드러내 짧은 호흡을 한다. 길은 그 흐름이 참 아름답다. 그것은 길이 놓인 위치와 숲의 연출이기도 한데, 다가드는 앞모습은 다소곳이 보여주는 반면 흘러 나가는 뒷모습은 얌전히 숲으로 가린다. 음전함의 진수다. “원 별 것을 다…”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 내게 여유가 되어주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잖은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포근하고 활기차

게 자신에게 다가든다면 누구라서 싫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그 동안 가까웠던 이웃들과 외떨어져 사는 외로움을 물리쳐주는 역할도 한다. 혼자서 상념에 젖을 때나 차를 마시고, 한 잔 술을 벗할 때도 다가드는 길의 방향과 흐름은 분명 한 알의 안정제다. 하늘 보다 더 큰 어둠이 내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도, 달빛과 별빛 까맣게 져버린 칠흑 밤에도, 지나는 차량의 스치는 불빛에 드러나는 길은 그 사실로 곧 위안이다.

한 가지를 오래보면

길은 내가 꼬박 10년을 살았던 자카르타를 벗어나 이 산골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지켰었다. 산마을 생활로 들어서는 신행을 호위했고, 활동무대를 고국으로 옮길까 고민하던 기로의 선택을 함께했다.

한 가지를 자주 보고 오래 보면 좋은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 아주 간절해지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 간절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내면과의 소통이라고 나는 믿는다. 작가에게는 그런 순간이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을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나는 무엇에 대해 간절해지는 순간이 좋다. 시간과 정렬을 쏟은 다음 도달하게 되는 진한 간절함이라면 거기가 진흙 구덩이라도 풍덩 빠지고 싶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어느 곳에서는 넋 놓고 한 이틀쯤, 어느 곳에서는 커피 한 잔 놓고 한 나절쯤 죽쳐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그러므로 겨우 테라스에 앉아 내려다보는 마을길로 인한 간절함이지만 그 여유가 싫지 않다. 결코 감정 낭비가 아니라고 여긴다. 하물며 이국의 산마을에 서원(書院)을 세우겠다는 꿈을 실천에 옮기면서 겪은 수고와 난감함, 지불한 학비가 얼만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정도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었다.

내적 과녁을 향해

내가 한국형 문화공간으로서 서원을 꾸며보기로 작정하고 경주마처럼 돌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10년과는 다른 모습이고 싶었다. 모름지기 작가의 활동은 외적이기보다는 내적 과녁을 향해야 한다는 소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다. 작은 것을 이루더라도 비루하지는 말자는 다짐도 한 몫을 했다.

살아보니 보고 느낄 많은 대상과 나누는 무언의 대화들이 좋다. 평정심을 얻기에 그만이라는 노동시간이 많아진 것도 나쁘지 않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곧 삶의 여유라는 것도 산골마을에서 살면서 더 확실해졌다. 간절함은 곧 내게 있어 삶이나 작품의 화두인 여백에 다름이 아니다. 이상과 현실 두 접점이 어우러진 나만의 고유한 여백, 바야흐로 이제야 여백 찾기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다. 나아가 꾸며질 문화공간이 다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된다면 얼마나 큰 덤인가.

"길이 안보이거나 길을 헤매는 것은 옛 길을 잊었기 때문"이라 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산마을 찌자얀띠의 마을길, 이 길은 오랜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생겨나 오늘로 이어진 길임에 틀림이 없다. 잃어지고 잊힌 적이 없었을 길이다. 밀물처럼 내게 다가드는 길, 그 작은 여백은 오늘도 쉬지 않고 어딘가로 나아간다.

이번호부터 인재 손인식 선생의 <DESA DREAM 閑談>이 향후 일 년 간 연재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서예가로서 활발한 문화활동을 펼쳐온 선생의 아포리즘적 글을 통해 한 가닥 삶의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영어 회화, 더 유창하게 하려면

문단열의 만만한 패턴으로 영어회화 사로잡기

문단열 저 | 에듀박스

영어회화를 잘 해보겠다는 열정과 의욕은 넘치는데 막상 시작하면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영어회화를 공부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거나 새로운 표현만을 익히려고 하다 보니 지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영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만만한 패턴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아주 쉬운 문장과 단어도 막상 사용하려 하면 생각이 나지 않아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씩 조합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훌쩍 가고 결국 한마디도 못하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만한 패턴들을 익혀보세요.

만만한 패턴들이 입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이티브들이 자주 사용하는 회화패턴 230개와 패턴을 응용한 다양한 예문,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활용한 실제 대화문을 실었습니다. 머릿속에 상황을 그려가며 연습해보세요.

하루 15분, 기적의 영어습관

| 전대건 저 | 위즈덤하우스

영어는 한꺼번에 얼마만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은 저자가 직접 강의한 10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와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로 구성되었다. 15분에 하루 공부할 분량을 모두 담아 의지가 부족해 혼자 공부하기 힘든 학습자들도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다.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돌파 기록의 영어분야 인기 강사 전대건이 모든 챕터를 강의하였고, 그가 엄선한 활용도 200%의 실용적인 영어문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New English 900 Vol 뉴잉글리시900

Edwin T. Cornelius, Jr.저/이보영 감수 | 시사영어사(YBM)

언어학자 Cornelius가 미국 정부의 의뢰를 받아 만든 미국 표준영어 교재이다. New English 900의 900개 문장은 낯설지 않다. 초중고 시절 영어를 배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낯익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들이다. 과장되거나 과도하게 세련된 스타일의 영어가 아닌 실생활에서 실제로 쓰이는 실용적이고 매운 쉬운 문장들이 담겨 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영어 강사 이보영과 아이작 선생님이 책 내용과 더불어 꼭 알아두어야 할 팁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설한다.

달콤 쌉싸름한 영어책

| 이수희 저/노현정 그림 | 투리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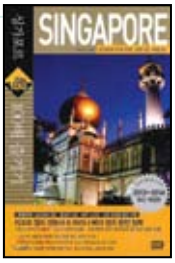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22개의 주제로 나누어 영어 명언이나 경구를 담은 『달콤 쌉싸름한 영어책』. 블로그나 홈피에 자신의 감정을 한 마디의 영어 명구로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영어 명구 뿐 아니라, 리얼한 생활표현도 수록되어 자신만의 영문 '카피'도 찾고, 동시에 영어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책이다. 다양한 출처를 통해 가식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을 표출한 글들과 함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주는 글도 실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 일상 속의 탈출, 삶을 바꾸는 여행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일
최갑수 저 | 예담
여행작가로 활동하는 최갑수 시인의 여행에세이. 책의 제목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나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을 뜻한다. 나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상대를 편견 없이 맞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상처의 흔적을 담담히 어루만지며 인생을 조금씩 긍정해가는 방법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작가는 생활인으로서의 우리 내면을 섬세하게 읽어 내려가며 여행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감수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유럽에서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0 : 여행박사 정보상의 그림 같은 유럽여행 | 정보상 글,사진 | 상상출판
유럽에 간다면 꼭 한 번은 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들만을 엄선한 가이드북. 여행을 떠나기 전 행선지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하다. 수십 차례 유럽을 여행한 경험을 살려, 유럽여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떠신지?' 혹은 '이곳만은 반드시!' 를 제안한다. 역사문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과 현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곳 위주로 선정했고, 서양미술사의 보물창고인 미술관 기행도 양념처럼 넣었다.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 태원준 저 | 북로그컴퍼니
엄마의 환갑잔치를 위해 모아둔 돈을 가만 들여다보던 아들은 차라리 이 돈으로 엄마와 세계여행을 하는 게 낫겠어, 라며 일을 저질렀다. 일도 그만두고 '세계를 무대로 신나게 한 판 놀고 오자!' 고 말해버린 것. 당황했을 법도 한 이 엄마, 며칠 고민하는가 싶더니 덥석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출발한 때에는 '엄마가 과연 잘 놀 수 있을까?' 가 걱정이라면 걱정이었다. 하지만 웬걸. 하도 조신해 음주가무는 꿈도 꾸지 않던 엄마가 베이징 공원에서 벌어지는 춤판에 끼어들어 무아지경 몸을 흔드는 건 기본. 청두의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만두 빚기 대회에서는 손놀림 신공을 선보이며 어깨를 으쓱했고, 베트남 훼에서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뜬 씨클로 운전석에 냉큼 앉아 돌아온 씨클로 기사의 넋을 빼놓기도 했다.
나이 서른의 아들, 예순의 어머니는 장장 50개국, 100여 개가 넘는 도시에 발자취를 남겼다. 여행 내내 엄마와 재롱잔치라도 부리는 듯한 아들의 흥미롭고 훈훈한 에피소드가 가득 담겨 있다.



싱가포르 100배 즐기기 : 싱가포르 10개 지역 . 빈탐 섬 . 바탐 섬 | 허유리 저 | 알에이치코리아(RHK)
기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 ,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 를 비롯해 싱가포르의 새로운 명소로 뜨고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 'S.E.A 아쿠아리움' , '어드벤처 코브 워터파크' 등의 핫 스폿 여행 정보를 상세하게 담았다. 싱가포르 전체와 중심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는 폴더 지도는 물론 지역별 상세 지도를 삽입하여 본문에 나온 지역을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세 교통편, 숍, 음식점 소개까지 곁들여 여행 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유서영
021-2902-1714(직통105) / 0821-2282-8352 /
berrius@yes24.co.id / www.yes24.co.id

8월의 영화 추천작

"지금…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밀려난 국민 앵커 '윤영화'는 생방송 진행 중, 신원미상 청취자로부터 협박전화를 받는다. "내가 터뜨린다고 했죠…?" 장난전화로 치부하며 전화를 끊은 순간, 마포대교가 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눈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재난이 '테러사건'이라는 단서를 쥐게 된 윤영화! "신고하지마.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마감뉴스 복귀 조건으로 보도국장과 물밑 거래를 시도한 그는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독점 생중계하기에 이른다.

예술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무인, 그리고 두 명의 여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무협 액션 "쿵푸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다. 수평과 수직! 지는 자는 수평이 된다. 최후에 수직으로 서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전설로 기억되는 영춘권의 그랜드마스터 '엽문'(양조위), 어떤 고난에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그의 아내 '장영성'(송혜교), 궁가 64수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엽문과 무술로 교감했던 '궁이'(장쯔이). 무술의 황금시대, 운명의 소용돌이에 갇힌 사람들 ...

<더 테러 라이브>

대한민국 대표 흥행 주자 하정우의 스크린을 압도하는 탁월한 연기력은 그가 '대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입증해준다. 이처럼 테러 현장의 한 가운데에 있는 듯 생생하고 강렬한 충격을 안겨줄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한국형 재난영화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실시간 테러극의 탄생을 알리며 올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폭발시킬 예정이다.

<일대종사>

영화 '일대종사'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무인 엽문(양조위)과 그를 사랑한 두 여인(장쯔이, 송혜교)의 이야기를 통해 무림의 세계를 그린 스타일리쉬 무협 액션 작품이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감독과 배우, 세계 각국의 스태프들이 모인 아시아 최고의 프로젝트로서 올해 베를린영화제와 중국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작품성을 인정 받았고, 중국에선 56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제4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내가 너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
폭우에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 젖은 땅에 길 내는 잎맥처럼
문학의 길을 여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
나조차 알 수 없는 내 안의 가득한 열정으로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거리를
문자로 해독하는 그대에게 가고 싶다
너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발견하는 숲의 미학을 아는,
너에게서 비롯된 나의 그대에게 가고싶다.
제3회인터넷공모전 시상식 인사말 중에서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3년 5월~8월15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 A4용지 2쪽에서~ 5쪽 / 시 부문 2편 이상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2013년 9월(일시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상 의 종 류	인 원	시 상	시 상 내 역
대상(1명)	1	재인니한국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각 1명)	2	재인니한인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 1명)	2	한 · 인니문화연구원이사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각 1명)	2	한 · 인니문화연구원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 1명)	2	재인니상공회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각 1명)	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각 2명)	4	한 · 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후원: 주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상공회의소,
일요신문, 한인뉴스,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신문, 자카르타경제일보

특별후원: 재외동포재단. 재인니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 한인회부회장 김주철

붙임 ; (글자모양=바탕체, 글자크기=11, 행간=160%)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021) 78839597 / 0816-190-9976
서미숙 0812-8178-050 gaeunsuh@hanmail.net
채인숙 0815-8479-7879 jemmachae@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둥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날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J 칸막이·인테리어

· 사무실 칸막이 전문시공
· 전기 및 설비공사
· 타일 및 도장공사

Tel : 021-7590-6767
HP : 0821-2564-1777
E-mail : choimg21@gmail.com
주소 : FATMAWATI LOTTE MART
RUKO BLOK G/03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횟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횟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뽄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뽄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 (강희중)	0816 798221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KORINDO
P1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www. kideco.com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연기가 되어 다다릅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뚝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